

기본연구 2008-07

충남지역 향토산업 선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관률

발 간 사

향토산업은 내생적 지역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접근방법이다. 오래전부터 선진외국에서는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주요한 지역개발전략으로 향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토산업을 클러스터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개별 지역은 무한경쟁의 논리에 직면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배태된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는 향토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FTA와 DDA 협상의 진전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농촌 및 낙후지역은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도 향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향토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향토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인식수준,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향토산업의 선정기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향토산업을 농업클러스터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한계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시군에서 2008년도 자체적으로 선정·수립한 향토산업 선정과정의 특성과 향토산업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방향이 향후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이관률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문위원 및 충청남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용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낙후된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전통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향토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 밸리 와인클러스터, 노르웨이 농식품 클러스터, 일본 야마나시 와인산업 특구 등이 있다. 이들 사례는 지역적으로 특화된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요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간 향토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향토산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성공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향토산업의 선정기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향토산업을 농업클러스터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시군에서 2008년도에 자체적으로 선정한 향토산업 선정과정의 특성과 향토산업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충남지역의 향토산업은 1차 농산품 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고, 대부분 향토자원 부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산업화 가능성은 보통인 것으로, 그리고 추진의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향토산업의 종합점수가 높은 지역은 추진의지와 산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성적 분석결과와 회귀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결과에서 동일하게 얻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토산업의 선정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향토자원에 기반을 하여야 하고, 지역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향토산업의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충남지역 시군에서는 향토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크게 전문화전략, 연계화전략, 다각화전략의 세 가지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화전략은 하나의 향토산업을 선정하여 생산-가공-유통의 단계적 발전모델을 취하는 형태이고, 연계화전략은 유사한 자원을 연계하여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형태이며, 다각화전략은 2개 이상의 향토산업으로 다양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충남지역 시군별 향토산업의 전략모델을 구분해 보면, 전문화전략에는 청양의 구기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계화전략에는 홍성의 새우젓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각화전략에는 금산의 갯잎, 부여의 멜론 등을 비롯한 그 외 시군의 향토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발전전략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확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 시군에 향토자원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향토산업이 전반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향토자원을 선정하여 발전단계별 전략을 취하는 청양군 구기자 형태의 발전모델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향토자원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의 향토산업이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다면, 지역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모형 혹은 다각화모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천, 예산 등은 기존의 향토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다른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려는 다각화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경제기반 붕괴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산업 육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특화된 품종의 집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충남지역 향토산업은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토산업의 산업화 가능성과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행위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충남지역 향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별 시군 향토산업 노동시장의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

수한 전문인력 및 혁신인력의 양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향후 향토산업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새로운 인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개별 시군 향토산업의 생산, 유통, 가공,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등 관련산업 전반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시군 향토산업은 지역내 네트워크와 공동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경우 대부분 집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네트워크와 공동학습의 체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향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공동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공동학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시군 향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공식적 모임과 협회 및 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문화에 배태되어야 한다. 향토산업은 공식적 영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과 동시에 비공식적 분야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향토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선진외국 농업클러스터는 직접적인 시장개척, 틈새시장의 개척, 투어리즘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투어리즘은 클러스터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3
제2장 향토산업에 관한 일반적 논의	6
제1절 향토산업의 개념과 유형	6
1. 향토산업의 개념	6
2. 향토산업의 특성	7
3. 향토산업의 유형	9
제2절 향토산업의 선정조건과 발전조건	10
1. 향토산업의 선정조건	10
2. 향토산업의 발전조건	12
3. 향토산업과 농업클러스터	14
제3절 향토산업과 지역발전의 관계	16

제4절 향토산업과 관련정책	18
----------------------	----

제3장 향토산업의 현황 및 실태	20
-------------------------	----

제1절 우리나라 향토자원과 향토산업	20
---------------------------	----

1. 향토자원의 현황	20
-------------------	----

2. 향토산업의 현황	21
-------------------	----

제2절 충남지역 향토자원과 향토산업	25
---------------------------	----

1. 향토자원의 현황	25
-------------------	----

2. 향토산업의 지정현황	30
---------------------	----

제3절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선정기준	31
---------------------------	----

제4장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선정과 발전방향	33
-------------------------------	----

제1절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선정과정	33
---------------------------	----

제2절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특성분석	34
---------------------------	----

1. 신활력사업 지역의 특성분석	35
-------------------------	----

2. 비신활력사업 지역의 특성분석	36
--------------------------	----

제3절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적정성 분석	38
1. 신활력사업 지역의 적정성 분석	39
2. 비신활력사업 지역의 적정성 분석	46
3. 향토산업 적정성 분석의 종합	53
제4절 충남지역 향토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방향	57
1. 향토산업 클러스터의 구축현황	57
2. 향토산업의 성공요인과 발전전략	62
3. 향토산업의 발전방향	64
제5장 결론	6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6
제2절 정책제언	67
참고문헌	69
조 사 표	72

표 차 례

<표 1>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현황	20
<표 2>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지정현황(2007년)	22
<표 3>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지정현황(2008년)	23
<표 4>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지정현황(2009년)	24
<표 5>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현황	26
<표 6>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세부 현황	26
<표 7> 충남지역 향토산업 지정현황	30
<표 8>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선정기준	31
<표 9>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선정과정	34
<표 10>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특성	37
<표 11> 공주시 향토산업의 적정성	39
<표 12> 부여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41
<표 13> 청양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43
<표 14> 홍성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44
<표 15> 예산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45
<표 16> 아산시 향토산업의 적정성	47
<표 17> 서산시 향토산업의 적정성	48
<표 18> 논산시 향토산업의 적정성	50
<표 19> 금산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51
<표 20> 태안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53
<표 21> 충남지역 향토산업 적정성 분석의 종합	55
<표 22> 변수간의 상관관계	56
<표 23> 향토산업의 적절성 결정요인분석	57
<표 24>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파급효과	58
<표 25>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정도	60
<표 26> 향토산업 클러스터의 결정요인분석	62
<표 27> 향토산업의 성공요인과 발전전략	63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구성 및 체계	5
[그림 2] 농업클러스터의 개념모형	15
[그림 3] 향토산업의 발전전략	6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불균형과 과소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화·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의 확대와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진전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개방이 증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기반 조차 붕괴될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낙후된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전통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향토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이성근 · 이관률, 2006).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와인 클러스터, 노르웨이 농식품 클러스터, 일본 야마나시 와인산업 특구 등이 있다(김정호 외, 2004). 이들 사례는 지역적으로 특화된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요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제33조)”에 근거하여 향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가진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내생적 지역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향토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이론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 관련용어가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¹⁾

1)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지리적표시제, 신활력사업, 행정안전부는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식경제부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향토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토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향토산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성공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향토산업의 선정기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향토산업을 농업클러스터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시군에서 2008년도에 자체적으로 선정한 향토산업 선정과정의 특성과 향토산업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향토산업에 대한 이론연구 및 정책연구

향토산업의 개념은 학술적 개념이기 보다는 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향토산업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향토산업은 지역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연산업,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등과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론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각종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향토산업의 개념과 유형, 선정조건과 발전조건, 그리고 향토산업과 지역발전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현황과 추진정책의 일반적 특성 등을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2) 충남지역 향토산업 특성 및 적정성 분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08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충남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향토산업육성계획에서 주요 테마로 선정한 향토산업의 특성과 적정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향토산업의 특성 및 적정성 분석은 선정과정,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3)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방향

농업클러스터 이론의 관점에서 선정·발굴된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방향을 분석토록 한다. 선정된 시군별 향토산업의 발전방향은 향토자원의 집적, 노동시장, 네트워크, 착근성, 공동학습, 거버넌스 등의 수준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토록 한다. 그리고 향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모형을 수립·제시토록 한다.

2. 연구방법

1) 향토산업에 대한 이론연구 및 정책연구

향토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국내외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향토산업의 개념, 유형, 그리고 선정조건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재검토 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내생적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향토산업의 중요성, 향토자원과 지역발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향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성공요인을 클러스터 이론의 측면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향토산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각종 정책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현황과 관련정책의 추진실태를 분석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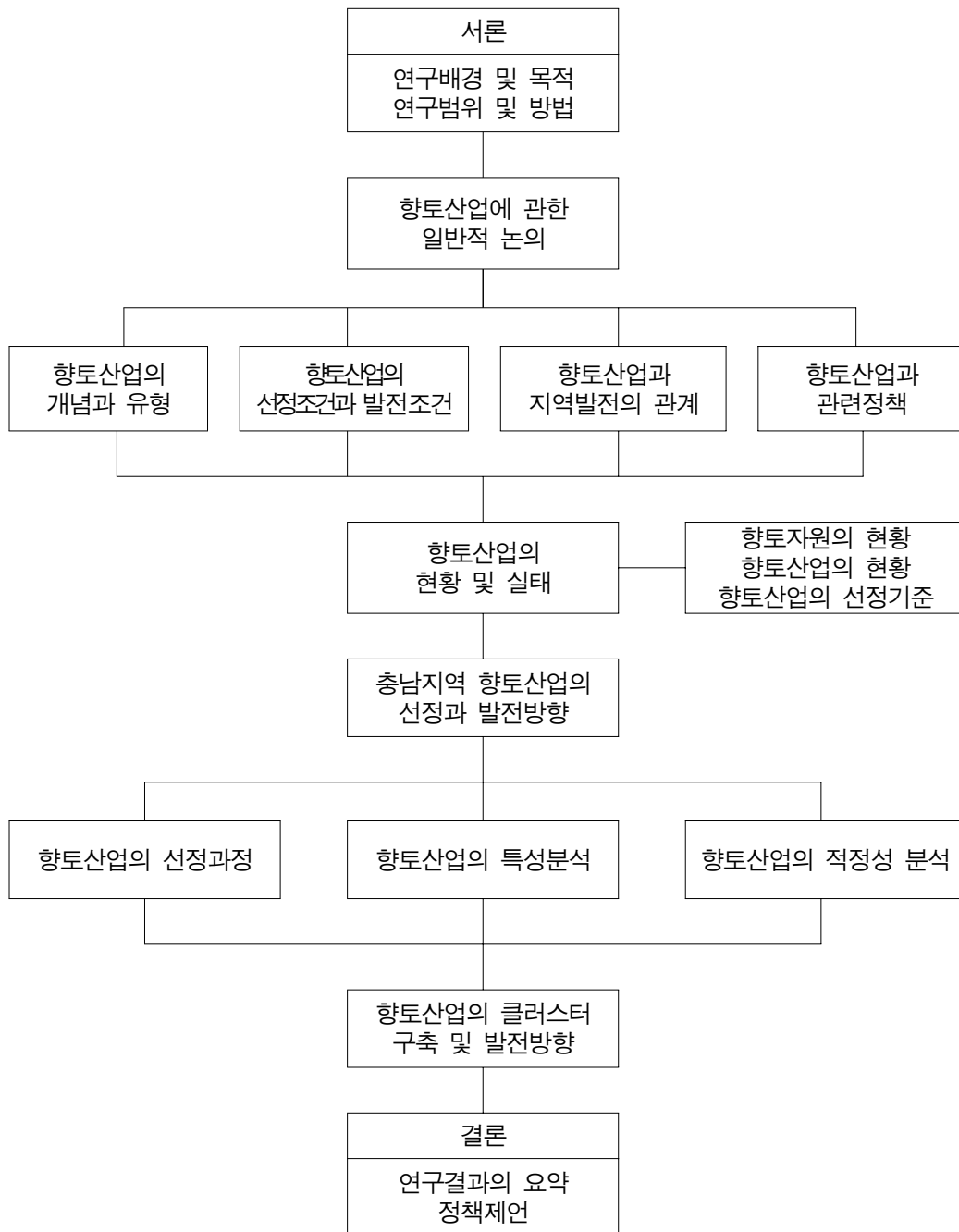
2) 충남지역 향토산업 특성 및 적정성 분석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특성 및 적정성 분석은 2008년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를 위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향토산업육성계획의 내용을 기초자료로 한다. 선정과정은 향

토산업의 선정주체, 수립주체, 자문여부, 제도적 장치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향토산업의 특성분석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내용분석을 수행하고, 향토산업의 적정성 분석은 향토산업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토록 한다.

3)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방향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방향은 향토산업 특성분석 및 적정성 분석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토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한다. 향토산업의 발전방향은 향토산업의 유형과 지역별 향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토록 한다. 아울러 향토산업의 발전방향은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조를 모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및 체계

제2장 향토산업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향토산업의 개념과 유형

1. 향토산업의 개념

향토산업의 개념은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향토산업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산업의 개념은 지역산업, 지역특화산업, 그리고 지연산업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 있다. 향토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향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5). 여기서 향토자원이란 특정지역에 주로 존재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의 생활과정을 통해 토착·계승되어 온 생활양식과 이를 구성하는 자연자원, 재화, 기술, 문화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향토산업은 향토자원을 산업화한 것인 바, 기본적으로 향토자원이 가진 지역적 범위와 문화적 전통성에 기초한 동질감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이동필외, 2007).

이러한 정의를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향토산업은 지연산업의 개념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향토산업은 지역경제성장의 추진력이 되는 산업부문으로서, 성장거점이론의 발전추진적 산업(propulsive industry)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향토산업은 생산, 고용, 소득효과가 클 뿐 아니라, 향토산업의 육성이 지역 전체의 성장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이성근외, 2003).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토산업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를 포함하는 입지상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지연적 성격이 강하며 산업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구조상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큰 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향토산업의 개념에서 볼 때 제한적인 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즉 향토산업은 현재 산업적 조건 뿐만 아니라, 향후 향토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산업구조상의 중

요도, 그리고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향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향토산업과 서비스·전통산업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김재운, 2003), 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책임성(sustainable and social responsibility), 환경변화에 적응성(climate change), 미래 기술수요와 훈련(future skill needs and training), 표준화와 산업화의 증대(increasing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 소비자 영향력과 기대수준의 증대(rise of consumer power and expectations), 그리고 리더십(leadership)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RIBA, 2005).

이러한 향토산업을 발전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잠재적 가치를 가진 단순한 향토자원 상태에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품화하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권리로써 향토지적재산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후 경영관리와 기능적 체계를 확립하고 상업화해서 산업적 가치사슬이 형성되면 비로소 향토산업으로 자리잡게 된다. 향토산업육성정책의 경우 어느 단계에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접근방법이 상이하게 된다.

2. 향토산업의 특성

향토산업은 지역성과 전통성을 갖고 있고 자원이나 생산과정, 산출물의 성격을 기초로 상품화 또는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내 동종 업체들이 집단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향토산업의 특성은 향토자원을 판단하는 준거나 잣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어떤 특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향토산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향토산업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경상북도, 2005).

첫째, 향토산업은 지역의 향토자원에 기반을 두되, 그 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품화 및 산업화되었거나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료, 노동력, 자본, 기술 등의 지역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특정한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노동력, 자본이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역적 연고 및 배태성을 지니게 된다. 셋째,

향토산업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정한 지역에서 산업형성이나 상품화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시간적 연속성을 지닌다. 넷째, 향토산업은 지역적 산업생태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향토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산업의 지역적 존재를 지칭하며, 향토산업 성장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향토산업은 그 특성에 기인한 몇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영세성, 비표준화, 노동력 확보의 곤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향토산업 임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미구축과 지역내 전후방연계의 취약 등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산업의 영세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향토산업은 10인 이하의 가내수공업 형태를 띠고 있는 바,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이로 인해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 수입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향토산업 생산제품의 표준화가 어려우며, 작업공정도 가내수공업형태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동필외, 2007). 예컨대 남원추어탕, 병천순대, 남원목기의 경우 음식점마다 사용원료와 조리방법이 비법으로 전수되어 제각기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하여 상품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향토산업과 관련된 노동력 확보가 곤란하다. 향토산업의 영세성과 가내수공업의 두 가지 특성은 부차적으로 노동력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확보의 곤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서천모시의 경우 생산인력의 평균 연령이 60세로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는 여타의 향토산업과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이다. 따라서 후계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따라 향후 향토산업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향토산업의 집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관련 업체간 공유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취약하다. 특히 유통 및 판매마케팅이 취약하여 주로 개발 판매 또는 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향토산업의 품질기준의 확립과 공동브랜드를 통한 유통 및 판매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향토산업은 특정한 지역에 집단화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발전해왔으나, 대부분 제품의 원료공급과 구매 사슬이 단순하며, 전후방 연계가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생산지의 출처를 알수 없어서 품질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3. 향토산업의 유형

향토산업의 유형은 산업유형별, 활용자원의 유형별로 구분 가능하다. 우선 산업유형별로는 1차 향토산업, 2차 향토산업, 3차 향토산업, 복합적 향토산업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활용자원의 유형별로는 전통지식 복원활용형, 부존자원 활용형, 전통산업 활용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²⁾ 여기서 전통지식 복원활용형은 전통속에 있었던 지식이나 구전되어 내려오는 비기 및 민간요법을 활용하여 제품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존자원 활용형은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거나 관광자원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통산업 발전형은 전통적 산업에 첨단기술이 도입되어 산업을 발전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향토산업의 목적은 산업화에 있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유형보다는 산업화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산업유형별로 향토산업의 유형을 구분하기로 한다.

1) 1차 향토산업

1차 향토산업은 1차 산업의 향토적 소재를 활용한 활용,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산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1차 산업의 소재로는 농림어업, 광업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산인삼산업, 보성녹차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등이 있다. 향토산업 활성화시기에 있어서는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치단체의 의지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2) 2차 향토산업

2차 향토산업은 제품의 가공 및 생산을 중심으로 하여 향토산업이 형성·발전된 경우를 의미한다. 의복, 식생활, 민속주, 기능성 제품, 생활용품 등의 분야에서 향토산업을 들 수 있다. 2차 향토산업의 유형으로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산지를 이루며 전승된 경우(한산모시, 소곡주), 전통지식을 산업화 경우(안동간고등어),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보령머드)을 상품

2) 향토자원의 활용유형을 토산품판매형, 관광·문화중심형, 지역브랜드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3차 향토산업

3차 향토산업은 지역의 환경, 문화, 생태, 산업적 자원 및 기반을 관광 등 서비스의 형태로 산업화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축제나 이벤트를 산업화시킨 경우, 이미지나 캐릭터,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보령머드축제 등을 꼽을 수 있다.

4) 복합적 향토산업

복합적 향토산업은 1차 및 2차 향토산업을 관광 등의 3차 서비스산업과 연계하여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향토산업의 복합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향토산업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향토산업의 선정조건과 발전조건

1. 향토산업의 선정조건

지역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의 선정과 동시에 전략산업 선정·육성에 의한 지역산업 재구조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지역산업구조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향토산업의 선정은 산업구조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치사슬(value chain)은 가치창출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들의 중요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다. 예컨대 최근 새로운 수산자원으로 심해수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심해수는 1차적으로 양식업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심해수로 양

식된 수산물은 다시 2차에 의해서 가공·제조가 되게 된다. 아울러 이들 1차·2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금융·연구 등과 같은 3차 산업부문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SWOT 분석과 산업연관표에 의한 클러스터 분석을 바탕으로 향토산업의 선정 및 육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신산업과 연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산업은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바,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향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1·2·3차에 걸친 연관산업의 재구조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이성근외, 2002).

향토산업은 산업의 입지요인 측면에서 현재 최적입지를 시험하고 있거나 향후 실현할 가능성이 큰 특정산업으로서 지역의 산업발전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향토산업의 선정목적은 첫째, 산업의 최적입지를 통한 산업경쟁력의 제고, 둘째, 지식기반 신산업의 입지여건 및 지역의 혁신환경 집중 정비, 셋째, 지역산업발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 마련의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그렇다면 향토산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향토산업의 선정조건에 대해서 일치된 요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변수에서 상이할 뿐 아니라, 선정조건의 논의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각각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미시적 측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향토산업을 입지계수에 의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전후방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토산업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선도산업·기술에 대한 전망과 평가연구에 의하면, 사업성과 기술확보가능성으로 크게 구분하고, 사업성은 다시 시장성과 수익성으로, 그리고 기술확보가능성은 기술역량과 성공가능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거시적 측면에서는 학자별, 그리고 사례연구별로 향토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상이하게 제시된다. 김선배(2001)의 연구에 의하면, 향토산업의 선정기준으로 산업발전정도 측면에서 산업집적지 평가(대표집적지와 유망집적지)와 입지우위성 평가(입지계수와 할당계수)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산업발전방향평가(입지적합성과 기술혁신역량)와 정책적 육성여지 평가(지자체와 중앙정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김재윤의

(2003)는 성장동력추진의 조건으로 성장동력과 서비스·전통산업의 조화, 산업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구사(공급능력 강화, 시장대응력 제고, 신수요 창출, 장기적 인프라 개선), 전략적 유연성, 글로벌 경쟁력 제고, 민관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국가적 의지결집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우는 산업(품목)을 개방식의 설문지를 통해 탐색을 하고, 탐색된 산업(품목)을 대상으로 지역여건분석을 SWOT 분석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토산업의 선정조건은 분석수준과 분석변수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선행연구는 향토산업의 단편적 특성에 한정되어 있는 바, 향토산업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토산업을 미시적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변수를 선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특정산업의 내부적 경쟁력, 시장진입, 대체상품, 공급자의 영향력, 소비자의 영향력, 지역성, 그리고 산업연관성의 여섯 가지 요인이 산업이익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http://itech.fgcu.edu/faculty/bhobbs/bds11-2nd>, 2003).

2. 향토산업의 발전조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 선행연구를 원용하여 향토산업의 발전조건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적경제, 노동시장, 네트워크, 착근성, 공동학습, 그리고 거버넌스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토록 한다.

첫째, 향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집적경제가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종품종의 집적과 더불어 관련지원산업의 공간적 집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적경제를 논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동종 또는 유사한 품종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동종품종의 집적만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유관업종(combinations of industries)의 집적이 중요한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며, 후자라면 유관품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Oinas

and Malecki, 1999).

둘째, 성공적인 향토산업은 높은 수준의 노동력과 풍부한 노동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수준은 농업클러스터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DTL, 2003). 농업클러스터가 지역적으로 안정된 노동시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클러스터 내 재배자들은 사회·경제적 이유에서 클러스터 외부에서 노동력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클러스터 내 노동자들도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장벽은 지역노동시장(localized labour market)의 안정성을 제고하게 된다.

셋째, 향토산업은 상이한 주체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기본전제로 한다. Camagni(1991) 등의 GREMI 연구자들 사이에는 네트워크가 특정지역의 혁신능력을 지속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의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 정보교환 및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개발·생산의 통합, 사용자-공급자 간의 지속적 협력 및 이종품종간 협력 등을 가능케 하는 기능별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하다.

넷째, 착근성을 이룩한 향토산업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성격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식의 공동풀이 형성된다. 또한 학습능력과 이를 통한 유연성이 증대되고, 신뢰와 상호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과 함께 공감대의 형성이 원활하여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이 용이한 등의 성과가 나타난다.

다섯째, 공동학습(collective learning)은 개별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 향토산업 내부에 존재하는 공통된 지식을 창출하고 이전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농업클러스터가 내부적으로 혁신의 과정과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과가 어느 주체에 의해 비롯되었던 간에, 빠른 시간 내에 공공재가 되어 해당 집단에 속한 주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조직적·제도적·사회적 근접성에 의해 원활화되는 경향이 있다(Capello, 1999). 공동학습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력의 외부유출이 낮을 것과 공급자와 소비자의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가 필요하다.

여섯째,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고 공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유재원 외, 2005). 그러므로 거버넌스에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나아가 초국가 기구들, 즉 공공, 준공공, 민간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정치적 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정병순, 2000). 이처럼

럼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 향토산업과 농업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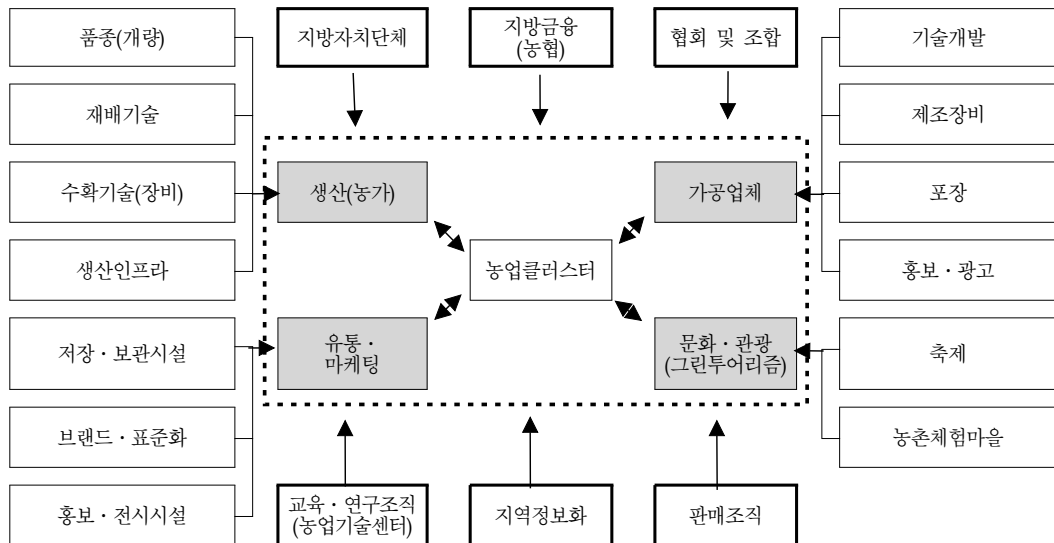
향토산업을 클러스터 관점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Porter의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 사례연구를 꼽을 수 있다. Porter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 이외에도 가공산업과 지원산업 및 연관산업을 포괄하여 분석하고 있다. 즉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의 경우 1차 산업 부문에서는 포도재배농가 및 조직, 묘목, 생산장비, 농약 등 생산지원산업, 2차 산업 부문에서는 와인제조업체 및 조직, 병, 마개, 라벨 등의 와인제조 지원산업, 3차 산업 부문에서는 홍보, 출판산업 및 관광산업을, 그리고 산업지원부문에서 정부기관과 교육 및 연구 기관 등을 포괄하는 특정산업과 연관된 산업과 지원부문을 포괄하는 가치사슬이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Porter, 1998).

우리나라에서 농업부문에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농림수산물부가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을 수립하면서이다. 농업클러스터는 지역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혁신주체로 재편성하는 것이다(이종호, 2005). 즉 농업클러스터는 단순한 농작물 주산지 범주를 탈피하여 특정작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형성, 생산자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적 학습체계의 구축, 산학연관 주체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클러스터 구축은 지역특화작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구조고도화를 확보하며, 소득기반 및 고용창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을 경쟁력을 갖춘 농촌지역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러한 농업클러스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농업과 관련된 연계산업을 포괄하여 가치사슬에 준거한 특정 농업의 지리적 집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1차적으로 작물의 지역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산주체 간에 경쟁과 산학연관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시너지가 발생해야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이성근 외, 2005). 따라서 농업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가공산업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단순집산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지역의 농업을 농업클러스터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클러스터는 생산-가공-유통-문화(체험)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2] 참조). 우선 특화작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품종(개량), 재배기술, 수확기술(장비), 생산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고, 가공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제조장비, 포장, 홍보·광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통·마케팅을 위해서는 저장·보관시설, 브랜드·표준화, 홍보·전시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특화작물을 매개로 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축제와 농촌체험마을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농업클러스터의 개념모형

자료: 이성근외, 2005.

이러한 농업클러스터의 가치사슬의 단순한 생산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물의 생산을 기반으로 하여 가공과 유통체계를 정비하여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소비자(도시민)들에게 추억·체험을 판매함으로써 다시 특화작물을 구매 혹은 농촌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화한 것이다. 한편 농업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 지방금융(농협), 협회 및 조합, 교육·연구조직(농업기술센터), 지역정보화, 그리고 판매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내외의 혁신주체들이 농업클러스터를 후방에서 지원해야 하게 된다.

제3절 향토산업과 지역발전의 관계

최근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적 전략으로 영역기반적 발전전략(territory-based development strategy)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략은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즉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기반적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³⁾

첫째, 내생적 발전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내생적 발전전략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 기술, 인재, 문화, 시장 등을 이용해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종래의 외생적 지역발전전략이 외부자본투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인재, 전통, 문화, 역사를 무시한 채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발전전략을 추구한 데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지역의 내적인 성장 잠재력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둘째, 지방주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앙은 지방의 특성과 수요에 둔감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전략을 구상,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이 전략은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민감하고 적시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영역성(territoriality)에 기반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역성은 특정한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이성이다. 영역성의 요체가 바로 장소자산(place asset) 혹은 영역자산(territorial asset)으로 일컬어지는 향토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상업화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토자원의 독창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넷째, 향토산업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협력 채널을 향토자원의 경쟁력을 향상

3) 향토산업과 지역발전의 관계는 김현호·한표환(2004)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킴을 위한 사업 발굴, 기획과 아이디어 창출, 사업 활성화 등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내외의 출향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 유지한다. 협력 네트워크는 향토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 확보 뿐 아니라 지식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향토자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에 시행해온 중앙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이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기 보다는 국가통합 차원에서 전국최저생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 되었다는 반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지역 이외에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과 맞물려 향토산업이 낙후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소생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전략은 신활력지역의 발전사업과 같은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발달에 유용성이 클 것이다. 신활력사업의 대상지역들은 대부분이 향토자원 이외에는 잠재력이 부족한 지역들인데, 향토자원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개발한 향토자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등을 통해 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 향토자원 개발을 정보화 마을과 연계시켜 마케팅과 판촉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이 다수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향토자원은 종래의 인프라에 기반한 생활환경 개선에서 나아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하겠다. 또 전통적으로 지역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입지의 상대적 이점인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이런 이점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낙후지역의 경우는 이같은 입지여건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활로를 다른 부문에서 모색해야 한다. 낙후지역으로서는 그들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산업, 인력, 환경 등 고유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토자원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향토자원이 지니는 지역발전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실효성이 있다. 향토자원 활용으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애착심 향상 뿐 아니라 지역의 매력도 향상으로 인해 관광

객이 몰려올 뿐 아니라 상품이 팔리고 기업이 성장하여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점은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의 사례들이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4절 향토산업과 관련정책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농어촌특산단지개발사업이나 전통식품육성사업,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정책수단이다. 그 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농촌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기반으로 지역특화품목육성과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지역특산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통합하여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지역향토산업을 매개로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경우 고부가치화가 가능한 주요 향토지적재산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향토지적재산활용 지역특화상품개발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전통문화, 고유한 유무형의 향토산업을 산업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확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강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끝으로 지식경제부는 2005년부터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확충하고, 지역산업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기 위해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프로젝트사업과 포럼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향토산업이나 지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3장 향토산업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우리나라 향토자원과 향토산업

1. 향토자원의 현황

우리나라의 향토자원은 총 2,254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차산업(농림수산물)이 933개(4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차산업(가공품)이 666개(29.5%)이다. 반면 3차산업의 관광과 의료교육은 144개(6.4%), 26개(1.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새로운 경향으로 강조되고 있는 복합산업화는 485개(21.5%)인데, 이중 대부분은 농림수산물과 가공품의 융합화에 해당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현황

(단위: 개)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복합화		
	농림수산물	가공품	관광	의료교육	농림수산물+가공품	농림수산물+관광	가공품+관광
합계	933	666	144	26	443	29	13
광역시	32	17	5	3	22	0	2
경기도	0	0	0	0	0	0	0
강원도	170	105	30	1	60	3	0
충청북도	80	58	11	1	1	1	0
충청남도	99	98	7	1	34	2	2
전라북도	89	140	11	3	29	8	2
전라남도	142	94	18	9	48	7	4
경상북도	158	68	19	2	99	2	2
경상남도	138	78	25	6	131	6	0
제주도	25	8	18	0	19	0	1

자료: 이동필 외(2007), p. 105.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의 향토자원이 38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이 369개, 경북이 350개, 전남이 322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충남의 경우는 243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향토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별 평균 향토자원의 수인 225.4개와 비교해 볼 때, 충남지역의 향토자원은 전국 평균 수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향토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현황은 향토산업의 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박석두·김태연(2004)의 지연산업과 중소기업청(2004)이 지정한 지역향토산업의 지정현황,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향토산업체의 조사결과(2004), 그리고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지정한 향토산업육성사업(2007-2009)을 통해 실태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박석두·김태연은 지연산업이란 개념으로 특산품·공예품·가공품 중에서 다수의 업체로 생산단지가 조성된 품목을 선정, 그 중 가공업체 수가 적거나(10개 미만) 단순가공업체를 제외하여 이를 지연산업으로 규정하고 33개 시군에서 44개 품목을 발굴·제시하였다. 여기서 파악된 향토산업은 지역공예품과 특산품 위주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집적된 규모만 파악하여 품목이 엄격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1, 2차에 걸쳐 지역성, 전통성, 산업경쟁력,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80개 시군에 82개 품목의 지역향토산업을 지정하였으나, 지정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생산품 위주로 선정되어 산업적 접근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2004)에서는 일반적 농산물의 지역성, 전통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분포하고 있는 향토산업을 조사하여 434개 품목을 발굴하였다. 이들 향토산업은 생산하는 사업체수가 1,572개, 종자사수는 44,119명, 매출액은 40,566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농림수산물식품부가 2007년부터 지정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은 19개, 2008년에는 30개, 그리고 2009년에도 30개 지정되어 총 79개 향토산업이 지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지정현황(2007년)

지역	시군	사업명
경 기 도	양평	양평 유기농 장류 산업육성
경 기 도	고양	고양 선인장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강 원 도	평창	봉평 메일 관광상품화
충청북도	음성	음성 신선편이 인삼개발
충청북도	진천	진천 쌀과 작두콩을 이용한 향토제품 개발
충청남도	청양	청양 구기자 산업육성
충청남도	당진	당진 초락도리 약썩개발
전라북도	완주	봉동 생강 명품화
전라남도	광주	광주 전통민속 떡 산업육성
전라남도	보성	보성 대마를 이용한 산업화
전라남도	장흥	장흥 호박이용 상품화
전라남도	진도	진도 구기자를 이용한 전통 식품개발
경상북도	영천	영천 포도 웰빙산업 육성
경상북도	성주	성주 참외씨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경상남도	함양	함양 죽염 웰빙산업육성
경상남도	합천	합천딸기를 이용한 주스 개발
경상남도	통영	통영 동백씨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제 주 도	북제주	제주 녹차 관광조성
제 주 도	남제주	제주 천연염색 명품화

〈표 3〉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지정현황(2008년)

지역	시군	사업명
인천광역시	강화	연 상품화 육성사업
강 원 도	횡성	횡성 더덕 육성 사업
강 원 도	평창	평창 봉평메밀 명품화사업
강 원 도	정선	생약초, 옥수수를 이용한 토속주 개발
강 원 도	인제	내린천두부 클러스터 사업
충청북도	제천	제천 한방약초를 활용한 친환경 순환 산업육성
충청남도	서천	한산 소곡주 명품화사업
충청남도	부여	굿뜨래밤 이용 가공식품 개발
전라북도	남원	뽕나무(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류 개발
전라북도	김제	수박 가공산업 육성
전라북도	완주	이서 관상어 수출단지 육성 및 명품화
전라북도	장수	장수 오미자 육성사업
전라남도	여수	여수돌산갓 육성사업
전라남도	광양	광양 백운산 고로쇠 상품화 개발
전라남도	고흥	유자 부산물(유자씨, 파지) 이용한 상품 개발
전라남도	화순	천혜 잠업생산기지 특구 조성
전라남도	장흥	장흥표고버섯 군주은행 및 신제품 육성 브랜드화
전라남도	영암	영암 무과화 산업화 육성
전라남도	장성	감(연시) 과육을 이용한 상품화(빙과류, 젤리 등)
전라남도	완도	약산 생약초(삼지구엽초, 황칠나무 등) 명품화 사업
경상북도	김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
경상북도	청송	청송 토종 약대추 가공 산업 육성
경상남도	봉화	송이 간고등어 개발 브랜드화
경상남도	사천	대단지 웰빙 녹차 가공산업 육성
경상남도	남해	남해마늘 가공식품 개발
경상남도	하동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의 개발
경상남도	산청	지리산 곶감 명품화 사업
경상남도	함양	산머루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경상남도	거창	거창 산이슬 오미자 가공산업육성
경상남도	기장	친환경 인증 검정쌀을 주원료로 한 상황버섯균사체 발효기술을 이용 최고급 레드와인 개발사업

〈표 4〉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지정현황(2009년)

지역	시군	사업명
경 기 도	김포	인삼쌀맥주 관광사업
강 원 도	춘천	춘천 닭갈비 명품화 사업
강 원 도	홍천	홍천 잣 명품화 사업
충청북도	보은	보은 향토대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
충청북도	충주	신선편이사와 및 고부가가치 사과가공 상품 개발
충청남도	금산	고품질 안전인삼농식품 생산
충청남도	논산	강경 전통맛깔젓
전라북도	고창	고창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전라북도	남원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전라북도	무주	무주 천마육
전라북도	완주	소양철쭉 군락단지조성 및 명품화사업
전라북도	전주	전주 전통모주개발
전라남도	강진	웰빙 도자산업 육성
전라남도	광양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
전라남도	나주	쭈크 전통기술 산업화
전라남도	담양	특산딸기의 웰빙 담양한과 명품화 육성사업
전라남도	순천	순천만 갈대이용 가공기반사업육성 및 신상품개발
전라남도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전라남도	진도	진도 울금(강황) 명품화 사업
경상북도	경산	경산 대추 “맛나베 대추 Fusion Food” 개발
경상북도	안동	천연염색, 안동전통한지 명품브랜드화
경상북도	영양	고추씨를 이용한 가공식품 육성
경상북도	영주	영주사과와 풍기인삼을 이용한 국민 스타식품 개발
경상북도	영천	전통염색 산업화
경상북도	칠곡	아카시아벌꿀, 차조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화
경상남도	거제	거제 맹종죽 관광 체험 상품화
경상남도	밀양	밀양 얼음골사과 명품화 사업
경상남도	사천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경상남도	진주	진주 토종 오디브랜드화
제 주 도	제주	제주 흑돼지고기 명품화 육성

제2절 충남지역 향토자원과 향토산업

1. 향토자원의 현황

충남지역의 개별 시군에서 향토자원 혹은 향토산업으로 1번 이상 거론된 향토자원을 목록화 하였다. 향토자원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시군의 웹사이트 및 충남넷의 향토지적재산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충남도 전체의 향토자원은 273개이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차산업이 95개(34.8%), 2차산업이 73개(26.7%), 그리고 3차산업이 105개(38.5%)이다. 이동필외(2007)에서 제시한 충남지역의 향토자원이 243개 보다 약 30개가 더 많은 것이다. 이처럼 향토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산정하였는가에 따라 향토자원의 현황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토산업과 향토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각 시군별로 향토자원을 목록화하고, 향토자원을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시군별로 구분해 볼 때, 향토자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공주시(27개)와 보령시(25개)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 향토자원이 가장 적은 시군은 계룡시(2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시군은 약 17개 정도의 향토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향토자원은 주로 1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향토자원을 시부와 군부로 구분해 살펴보면, 시부의 평균적 향토자원수는 18.3개인데 반해 군부는 16.1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토자원은 군부에 비해서 오히려 시부가 더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 시군별 향토자원은 1차, 2차, 3차 향토자원간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별 시군별로 유명한 향토자원을 주로 선정하였는 바, 각 산업단계별 향토자원의 연계성이 낮고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향토자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1차, 2차, 3차가 연계되어 상호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몇몇 시군에서는 향토자원간 연계화를 도모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령시의 경우 대천해수욕장과 보령천여머드화장품 및 머드축제, 금산군의 경우 인삼과 인삼관련 가공식품, 그리고 인삼축제, 서천군의 경우 한산세모시와 모시문화제, 청양군의 경우 청양구기자와 구기자 가공식

품 등으로 연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1차와 2차 향토자원의 연계화, 2차와 3차 향토자원의 연계화, 그리고 1차, 2차, 3차의 연계화라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16개 시군별 향토자원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표 5>과 같다.

<표 5>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현황

구분		총계	1차	2차	3차
전체		273 (100.0)	95 (34.8)	73 (26.7)	105 (38.5)
시부	천안	19	5	6	8
	공주	27	10	4	13
	보령	25	7	3	15
	아산	19	6	5	8
	서산	16	9	1	6
	논산	20	8	6	6
	계룡	2	0	2	0
군부	금산	11	4	3	4
	연기	20	4	7	9
	부여	15	8	7	0
	서천	21	4	6	11
	청양	11	3	7	1
	홍성	12	5	2	5
	예산	19	6	5	8
	태안	17	10	3	4
평균 향토자원수	당진	19	6	6	7
	전체	17.1	5.9	4.6	6.6
	시부	18.3	6.4	3.9	8.0
	군부	16.1	5.6	5.1	5.4

<표 6>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세부 현황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천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거봉포도 ▶ 천안선인장 ▶ 성환(천안)신고배 ▶ 은행란 ▶ 성황개구리참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화호도과자 ▶ 구기자한방차, 생맥산 ▶ 거봉포도식초 ▶ 병천(아우내)순대 ▶ 광덕호도 ▶ 삼거리참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상록리조트 ▶ 위례산성 ▶ 각원사(청동대좌불) ▶ 장승문화재 ▶ 유관순 유적지 ▶ 독립기념관 ▶ 태조산청소년수련원 ▶ 천안 흥타령축제

〈표 6〉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세부 현황(계속)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천포배 ▶ 정안밥 ▶ 우성오이 ▶ 동해동 산수박 ▶ 계룡산딸기 ▶ 봉암한방란골드 ▶ 웅진쌀 ▶ 신품고추 ▶ 도태랑토마토 ▶ 공주먹는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당전통메주 ▶ 공주감초 ▶ 계룡산건조누에가루 ▶ '각;(覺)자' 목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화분청사기안료 ▶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 공주 백제문화제 ▶ 선학리 지게놀이 ▶ 목공예품(한목예사) ▶ 공주장승제 ▶ 공주국립박물관 ▶ 계룡산 산신제 ▶ 계룡산 조각공원 ▶ 충남 산림박물관 ▶ 우성 무성산 ▶ 공주민속극박물관 ▶ 계룡산도예촌
보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조개 ▶ 천북 굴구이 ▶ 보령시 대천맛김 ▶ 대하 ▶ 남포오석 ▶ 남포 사현포도 ▶ 꽃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천연머드화장품 ▶ 까나리 액젓 ▶ 남포벼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연도 상록수림 ▶ 무창포 해수욕장 ▶ 등불써기 놀이 ▶ 대천 해수욕장 ▶ 화장골계곡 ▶ 성주사지 ▶ 명대계곡 ▶ 등바루 놀이 ▶ 냉포 옥장 ▶ 남포방조제 ▶ 풍어당놀이 ▶ 원산도해수욕장 ▶ 석탄 박물관 ▶ 보령댐 ▶ 머드 축제
아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토한약토종닭 ▶ 장어구이 · 장어죽 ▶ 아람 포크 ▶ 텃골(도고 쪽파) ▶ 염작배 ▶ 금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 연엽주 ▶ 다라미 메주 ▶ '최씨네' 어리굴젓 ▶ 선장김치 ▶ 녹용시습육골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양민속박물관 ▶ 아산현충사 ▶ 온양온천 ▶ 도고온천 ▶ 포도밭에서 ▶ 외암리 민속마을 ▶ 온양문화제 ▶ 아산온천

〈표 6〉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세부 현황(계속)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생강 ▶ 서산난 ▶ 서산오이 ▶ 서산달래 ▶ 대호간척지쌀 ▶ 감천배 ▶ 서산6쪽마을 ▶ 밀국박숙낙지탕 ▶ 스-산알타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 간월도 어리굴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포벼가릿대놀이 ▶ 안견기념관 ▶ 옥녀제 ▶ 서산 창리 영신제 ▶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서산박첨지놀이
논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리오골계 ▶ 맛가마 ▶ 논산 샘골 자두 ▶ 찰쌀보리 ▶ 연산대추 ▶ 상월누에 ▶ 노성참게 ▶ 가시오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곡 왕주 ▶ 교자상(차상) ▶ 강경전통맛갈젓 ▶ 양촌곶감 ▶ 고행논산참기름 ▶ 양촌감식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산백중놀이 ▶ 연산한학마을 ▶ 백제 전통 병사복 ▶ 광석 지와바리 놀이 ▶ 논성두레풍장 ▶ 논산딸기축제
계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산 찐엿 ▶ 목상감 바둑판 	
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달걀 ▶ 추부갯잎 ▶ 고려태극삼 ▶ 금산관상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골한과 ▶ 금산인삼주 ▶ 동초녹즙(농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백의총 ▶ 금산인삼축제 ▶ 고향(식탁도자기) ▶ 인삼종합전시관
연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오리 ▶ 금강오이 ▶ 전의건고추 ▶ 금학청결미 ▶ J·S 복숭아 묘목 ▶ 한방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토방 페인트 ▶ 덕고개추어탕 ▶ 초자진주목걸이 ▶ 은하 단무지 ▶ 전의전통메주 ▶ 약선김치 ▶ 매바위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황토박물관 ▶ 칠성특산단지 ▶ 용암강다리 ▶ 살구식초(살구마을) ▶ 도원문화제 ▶ 운주산성 ▶ 고북저수지 ▶ 비암사 ▶ 도원고래실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실콩나물 ▶ 세도 방울토마토 ▶ 부여 양송이 ▶ 사비인삼딸기 ▶ 백마강 수박 ▶ 위어회 ▶ 부여인동마을 ▶ 백마강 포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장 홍삼 ▶ 짚공예 ▶ 인동주 ▶ 오리약탕 ▶ 아미산 샘골메주 ▶ 백제요 ▶ 고향식품 	

〈표 6〉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세부 현황(계속)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서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김(삼육맛김) ▶ 서천아귀탕(온정집) ▶ 서천꽃게탕 ▶ 냉각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소곡주 ▶ 한산세모시 ▶ 자하젓 ▶ 까나리액젓 ▶ 서천단감 ▶ 공작선(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리산해송 자연휴양림 ▶ 한산 모시관 ▶ 춘장대 해수욕장 ▶ 월남(月南) 이상재 ▶ 서천산송리곰솔과 당산 ▶ 모시문화제 ▶ 전어축제 ▶ 송석어촌 체험관광마을 ▶ 마량포구 ▶ 금강하구언 관광지 ▶ 문헌서원(文獻書院)
청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표고버섯 ▶ 금강참게 ▶ 청양구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갑산구기자한과 ▶ 한울김치 ▶ 칠갑산 전통메주 ▶ 둔송구기주 ▶ 청양모시춘포 ▶ 운모석 향토벽돌 ▶ 구기자식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고추축제
홍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팽이 엑기스 ▶ 광천조선김 ▶ 지승공예 ▶ 땡땡이 냇물 공예 ▶ 꺼꾸리 화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에가루 ▶ 광천토굴새우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주읍성 ▶ 용봉산자연휴양림 ▶ 결성농요 ▶ 홍성대하축제 ▶ 만해제
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창호 ▶ 예산황복 ▶ 예산 오가 꼴돼지 ▶ 창소리 쪽파 ▶ 예왕배 ▶ 예산능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예산옹기 ▶ 예산봉대민속공방 공예 ▶ 삼다리잼 ▶ 신분준할머니 기러기칼 ▶ 절화용 스프레이 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고건축 박물관 ▶ 추사 문화제 ▶ 추사고택 ▶ 보부상 놀이 ▶ 수덕사 ▶ 매현문화제 ▶ 충의사 ▶ 예산능금 축제
태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 실치회 ▶ 태안 꽃게 ▶ 안면 태양초 고추 ▶ 태안백합(조개) ▶ 태안 육쪽 마늘 ▶ 태안 밀국낙지탕 ▶ 태안 국화 ▶ 태안느타리버섯 ▶ 태안 대하 ▶ 태안 원복 달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미손메주된장 ▶ 태안까나리액젓 ▶ 안면 새우란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해옥 ▶ 안면도대하축제 ▶ 황도 붕기 풍어제 ▶ 태안비단가리비종패

〈표 6〉 충남지역 향토자원의 세부 현황(계속)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락도 약쭈 ▶ 당진쌀 ▶ 송악감자 ▶ 면천파리고추 ▶ 당진국화 ▶ 당진 대호지 토종달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유주 ▶ 대포메주 ▶ 면천 두건주 ▶ 향채방 실크김치 ▶ 당진 삼배 ▶ 당진약용누에분말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섬풍어제 ▶ 서해대교 ▶ 왜목마을 ▶ 솔피성지 ▶ 삼교호 함상공원 ▶ 상록문화제 ▶ 기지시줄다리기

2. 향토산업의 지정현황

충남지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6개의 향토산업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청양 구기자 산업육성과 당진 초락도리 약쭈개발이, 2008년에는 서천 한산 소곡주 명품화사업과 부여 굿뜨래밤 이용 가공식품 개발이, 그리고 2009년에는 금산 고품질 안전인삼농식품 생산과 논산 강경 전통맛깔젓이 지정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산 소곡주와 안전인삼농식품 생산은 2차 향토산업에 해당되고, 그 외 4개 향토산업은 1차 향토산업에 속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의 향토산업은 주로 1차산업의 기반구축과 2차산업의 가공산업 육성이라는 형태로 종합할 수 있다. 한편 향토자원은 시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향토산업으로 지정된 곳은 논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7〉 충남지역 향토산업 지정현황

지역	시군	사업명
2007년	청양	청양 구기자 산업육성
	당진	당진 초락도리 약쭈개발
2008년	서천	한산 소곡주 명품화사업
	부여	굿뜨래밤 이용 가공식품 개발
2009년	금산	고품질 안전인삼농식품 생산
	논산	강경 전통맛깔젓

제3절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선정기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향토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향토산업의 본질적 목적측면에서 볼 때, 크게 향토자원의 부합성(지역성과 전통성), 사업화 가능성(사업성과 파급성), 그리고 지역내 추진주체의 의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별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산업은 향토자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산업은 지역성과 전통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성은 다시 집단성, 차별성, 지역특성과의 부합성으로 구분될 수 있고, 전통성은 역사성과 전통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토산업은 산업화 가능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우선 사업성은 시장성과 기술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파급성에서는 지역경제의 고용, 소득, 매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8〉 우리나라 향토산업의 선정기준

부문	기준	세부기준	세부내용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관련 산업들의 집적 정도
		차별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적 고유성
		지역특성과 부합성	부존자원과의 조화 및 부합성
	전통성	역사성	시간적 배태성
		전통성	문화적 배태성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시장수요의 존재 정도
		기술수준	노하우의 확보 정도
	파급성	파급성	고용, 소득, 매출의 영향정도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책임성과 의지
	추진조직	추진조직	추진조직의 여부
	추진역량	추진역량	기존 활동사항

셋째, 향토산업은 지역내 추진주체의 의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향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민간·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추진의지,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조직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향토산업은 지역성과 전통성을 가짐으로서 향토자원의 부합성을 만족함과 동시에 사업성과 파급성이 확보하고 있어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부가적으로 향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구성원들의 추진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향토산업의 평가기준을 종합하면 <표 9>와 같다.

제4장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선정과 발전방향

제1절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선정과정

향토산업의 선정과정은 선정주체, 수립주체, 자문경험, 향토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향토산업의 계획화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향토산업의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2008년 향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한 10개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인터뷰(2008. 11. 3 - 11. 6)를 통해 조사하였다.

우선 향토산업의 선정주체를 살펴보면, 주민수요에 기반한 시군이 5곳이고, 시장군수 및 공무원이 선정한 곳이 5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수요에 기반한 시군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향토산업에 관련된 종사자가 많은 경우이고, 시장군수 및 공무원이 선정한 경우는 지자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향토산업육성계획의 작성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여 수립을 하였고,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한 곳은 아산시와 부여군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향토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계획의 내재화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향토산업육성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무원의 지원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별 자치단체는 향토산업육성계획 수립과정에 전문가의 자문을 대부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향토산업육성계획에 대한 체계적 자문을 받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자치단체에서는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향토산업종합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례, 지원조직 등과 같은 체계적 지원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각 시군별로 담당공무원 1-2명이 외부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관련정보의 부족, 정책제도적 지원부족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대로 주민의 참여부족은 정보의 부

족에 비해서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선정과정

구분	선정주체	수립주체	자문	제도적 장치	애로사항
공주시	공무원	전문연구기관	경험	-	관련 정보의 부족 전문성 부족 정책제도적 지원
아산시	주민수요	지역주민	경험	협의회 구성	주민참여 부족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
서산시	공무원	전문연구기관	경험	-	관련 정보의 부족 주민참여의 부족
논산시	시장·군수	전문연구기관	경험	-	관련정보의 부족
금산군	주민수요	전문연구기관	경험	-	관련정보의 부족
부여군	공무원	공무원	경험	협의회 구성	정책제도적 지원 부족
청양군	주민수요	전문연구기관	경험	관련 전문가 풀	관련정보의 부족 정책제도적 지원 부족
홍성군	시장·군수	전문연구기관	경험	협의회 구성	관련 정보의 부족 정책제도적 지원 부족
예산군	주민수요	전문연구기관	경험	협의회 구성 관련 전문가 풀	전문성 부족
태안군	주민수요	전문연구기관	경험	-	주민참여의 부족 정책제도적 지원 부족

제2절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특성분석

충남지역에서 선정된 향토산업은 크게 향토산업육성사업과 농촌활력증진사업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정되어 있다. 2008년에 충남도에서 선정된 향토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농촌활력증진사업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1. 신활력사업 지역의 특성분석

낙후지역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시군은 공주,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의 여섯 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에서 향토산업과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지정하고 있는 향토산업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공주시의 경우 향토산업에서는 계룡백일주를 자체적으로 선정·신청한 반면,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신활력사업으로는 도농교류(주말도시)를 신청하였다. 한편 향토산업은 신청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주시는 향토산업과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있어서 연계성과 보완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상호 독립적으로 향토산업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여군은 밤을 향토산업으로 기 선정받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08년 부여군의 경우 향토산업으로 멜론을 신청하고 있고,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신활력사업으로는 굿뜨래를, 그리고 향토산업으로는 알밤을 신청하고 있다. 부여군은 기 선정받은 밤을 테마로 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의 향토산업으로 연계하고 있고, 새롭게 신청한 멜론은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주요 테마인 멜론을 선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부여군은 기 선정된 향토산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사업계승과 구조고도화 측면에서 향토산업을 선정·신청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서천군 역시 소곡주를 향토산업으로 선정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다. 2008년 서천군은 향토산업으로 전어·주꾸미를 향토산업으로 선정·신청하였는데, 이는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신활력사업인 김, 향토산업인 소곡주와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천군의 경우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향토산업인 소곡주와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양군은 향토산업과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우수한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청양군의 경우 2008년에 구기자 가공을 향토산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였다. 청양군은 2007년에 시작한 향토산업으로 구기자를 선정하였고,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는 구기자, 고추, 멜론으로 대표되는 파워7갑을, 그리고 향토산업으로는 구기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 신청한 청양군의 향토산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즉 기 추진한 관련 산업에서 구기자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한 다음, 금년에는 구기자 가공을 향토산

업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청양군은 향토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기자라는 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성장단계별로 구조고도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홍성군은 2008년에 토굴새우젓으로 향토산업을 선정·신청하였는데,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토굴햄사업과 직간접적 영향을 가진 것이다. 토굴햄은 새우젓을 숙성하기 위한 토굴을 이용하여 햄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성군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토굴을 이용하여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농촌활력증진사업의 향토산업은 선정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예산군은 금번에 추사체(타이포그래피)⁴⁾를 향토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충남도의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의 1차산품을 향토산업으로 선정·신청한 것과 달리 문화산업을 향토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신활력사업으로는 황토사과를 선정하고 있으나, 향토산업은 선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산군의 향토산업은 지역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추사 김정희의 서체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육성 및 지역특산품인 예산사과 마케팅을 하겠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비신활력사업 지역의 특성분석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 신활력사업을 시행하는 6개 지역을 제외한 천안시 등의 10개 시군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향토산업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의해서만 지정·신청할 수 있다. 이들 10개 지역 중에서 기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논산시(젓갈, 2009)와 금산군(인삼, 2009), 그리고 당진군(약쑥, 2008) 등이 있다. 우선 향토산업을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산시의 경우 향토산업으로 강경 젓갈을 2009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기 선정되었고, 울

4) 타이포그래피는 활자서체의 배열을 말하며 특히 문자 또는 활판적인 기호를 중심으로 한 이차원적 표현을 지칭한다. 또한 손으로 쓰는 문자에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수법에 의한 서체를 말하기도 한다.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근대 타이포그래피는 구성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표현을 추구하면서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의 한 분야로 발전시켰고,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구성적인 그래픽 및 언어의 시각화를 위한 영역 전체를 포괄하게 되었다. 타이포그래피의 원칙은 주어진 면적 안에서 명료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시각화할 정보의 양을 결정하고 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내용상의 표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 2008년에는 추시주를 향토산업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논산에서 선정한 향토산업은 강 경 젓갈, 양촌 추시주라는 지역내의 장소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산군의 경우 대표적 지역특산품인 인삼을 향토산업으로 기 지정받아 추진 중에 있는데, 2008년에는 갯 잎을 향토산업으로 추가 지정·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금산군의 경우 당초에는 군 전체에 서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인삼을 향토산업으로 선정·육성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역산업기 반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갯잎을 추가적으로 선정·신청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당진군의 경우 2008년에 약쭉을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면천두 견주를 선정·신청하였다. 당진군의 경우 약쭉과 면천두견주와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된다.

〈표 10〉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특성

구분	향토산업(2008)	농촌활력증진사업(2008)		비고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천안시	호두과자			
공주시	계룡백일주	도농교류(주말도시)	미신청	
보령시	한우			
아산시	배, 토마토			
서산시	생강한과			
논산시	추시주			젓갈(2009)
계룡시	우렁			
금산군	갯잎			인삼(2009)
연기군	복숭아			
부여군	멜론	굿뜨래	알밤	밤(2008)
서천군	전어, 주꾸미	김	소곡주	소곡주(2008)
청양군	구기자 가공	구기자, 고추, 멜론	구기자	구기자(2007)
홍성군	토굴새우젓	토굴햄	미신청	
예산군	추사채(타이포그 래피)	향토사과	미신청	
태안군	태양초고추			
당진군	면천두견주			약쭉(2008)

이상에서 살펴본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시군은 향토산업과 신활력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2008년 올해 향토산업으로 선정한 것을 살펴보면, 천안시는 지역의 대표명물인 호두과자, 보령시는 한우, 아산시에는 배와 토마토, 서산시는 생강한과, 계룡시는 우렁, 연기군은 복숭아, 태안군은 태양초고추를 향토산업으로 선정·신청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의 시군에서 선정·신청한 향토산업은 주로 1차 농산품을 기반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기 추진한 향토산업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청양군은 향토산업 선정의 일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부여군과 금산군, 그리고 홍성군은 지역내 향토산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그 외의 시군들은 향토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군의 경우 지역의 향토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선정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중의 하나인 예산사과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제3절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적정성 분석

당초 2008년 충남지역 향토산업육성사업에 16개 시군이 모두 신청을 하였으나, 이중 사업계획의 미흡 등으로 인해 천안, 보령, 계룡, 연기, 서천, 당진의 6개 시군은 예비심사에서 탈락을 하였다. 따라서 우선 향토산업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10개 시군의 향토산업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토산업의 적정성 분석은 2008년 충남지역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예비심사에 참여한 평가자와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2008년 9월 20일에서 23일까지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되었다.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에 추가적으로 개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1. 신활력사업 지역의 적정성 분석

1) 공주시

계룡백일주는 조서시대 인조대왕시절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궁중술로 연안이씨의 집성촌인 공주 봉정동 지역에서 지복남 명인에 의해 1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공주지역의 문화유산이다. 한편 계룡백일주는 전통식품 명인 제 4호로 지정된 한국의 전통민속주로 전통식품개발 시범사업지정, 전국 민속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관광명품주이다.

〈표 11〉 공주시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낮음
		차별성	보통
		지역특성과 부합성	보통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높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보통
		기술수준	높음
	파급성	파급성	낮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낮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낮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낮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공주시는 향토산업으로 계룡백일주를 선정·신청하였다. 그러나 공주시에서는 신청한 계룡백일주는 향토자원의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계룡백일주가 공주에서 널리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 국한되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계룡백일주를 향토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계룡백일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찹쌀, 백미 등을 지역내 20여 농가에서 계약·재배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룡백일주는 (주)계룡백일주라는 1개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이는 바, 향토산업의 성과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공주시에서 추진해 온 기존 지역개발정책과 계룡백일주의 관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내에 계룡백일주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1차적으로 공주시에서 2008년에 신청·지정한 계룡백일주는 향토산업의 본연의 목적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주시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향토산업을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여군

부여군은 농업인구가 49%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써 4,000여ha에서 시설채소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중 양송이(전국 45%), 토마토(전국 13%), 멜론(12.7%), 표고(13%) 등은 전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부여군은 이처럼 전국적 생산비중이 높은 농산물 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굿뜨래라는 지역상표를 만들어 전국적인 홍보·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특화품종 중에서 부여군은 밤 이후에 멜론을 향토산업으로 선정·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여군의 경우 멜론은 재배면적은 184ha이고 생산량은 54.8톤, 그리고 생산액은 8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동선별, 공동출하 방식의 채택으로 인해 시장에서 부여 멜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원예전문 생산단지 지정받아 육성되고 있다.

한편 부여군은 굿뜨래라는 상표로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여군 농협연합사업단을 2005년 결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부여군 연합마케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여군은 멜론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추진실적 및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과일시장은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여군은 주요 작물을 선정하고, 이를 굿뜨래라는 대표상표로

유통·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멜론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작에 의한 피해감소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멜론의 전략적 재배와 시장개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여군의 경우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공동학습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부여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높음
		차별성	높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높음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높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높음
		기술수준	보통
	파급성	파급성	높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높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높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높음

3) 청양군

청양군은 충남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향토산업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향토산업육성 초기에는 구기자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이를 달성한 이후에는 구기자의 가공산업에 초점을 두어 구기자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향토산업육성 전략은 다른 지역에서 향토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전략, 그리고 향토산업

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전략과 다소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양군이 향토산업으로 선정한 구기자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양지역은 국내 구기자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구기자 생산 지역으로 저가 중국산 구기자와는 품질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된 구기자의 70~80%는 단순히 지역에서 수매·선별되어 전국의 한약상이나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자들에게 납품되는 실정으로 1차적인 생산에서 비롯되는 매출 이외에는 지역에 커다란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역내 구기자 시장현황에 착안하여 구기자 가공산업을 향토산업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청양군에는 2008년 현재 10여개의 중·소규모 가공업체가 지역내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떡·한과·된장·건강보조식품 등에 단순 첨가하거나 차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구기자 가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1차 산업 위주의 청양지역 구기자 산업을 2차 산업 위주로 재편함과 동시에 관광·체험 등의 3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한편 청양군에서는 2005년부터 추진된 신활력사업을 통해 구기자 육성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구기자명품화사업추진단 및 청양구지가지종합 등과 같은 독자적인 추진조직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양군 구기자 향토산업은 향토산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향토산업 초기에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가공산업) 단계를 재도약하는 다단계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양군은 향토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기자 육성정책 전반에 있어서 유통·마케팅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청양군의 향토산업정책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와 구기자를 활용한 투어리즘 분야가 강조되고 있지 못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청양 구기자 향토산업의 경우, 향토산업을 테마로 한 연구개발-생산-유통-체험의 가치사슬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섹터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향토산업의 자발적 추진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작목반 및 농협을 중심으로 한 공동학습 및 관계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13〉 청양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높음
		차별성	높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높음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높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보통
		기술수준	보통
	파급성	파급성	높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높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높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높음

4) 홍성군

홍성군의 대표적 향토자원으로는 광천토굴새우젓을 꼽을 수 있다. 현재 홍성군의 경우 향토산업으로는 새우젓을,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는 토굴햄을 선정·추진하고 있다. 양 산업은 토굴이라는 공통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주요 특산품인 새우젓과 양돈산업을 접목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홍성군은 토굴이라는 지역특화자원을 바탕으로 향토산업을 연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홍성군은 젓갈류 생산액이 2007년 33,804백만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34.8%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한편 새우젓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우젓은 홍성군을 대표하는 향토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인식하는 문화적 배태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광천읍 웅암리 독배마을을 중심으로 한 광천시장과 최근에 새롭게 형성된 은하면의 특화시장에 모두 130여개의 점포가 성업 중에 있다. 이들 광천지역의 새우젓 생산자들

은 토굴에서 숙성시키는 이 지역 고유의 방법을 통해 '토굴새우젓'을 생산하고 있다. 토굴 새우젓의 가장 큰 특징은 산중턱에 토굴을 파서 새우젓을 발효하기 때문이다.

〈표 14〉 홍성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높음
		차별성	높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높음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높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보통
		기술수준	보통
	파급성	파급성	높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높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낮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낮음

홍성군의 향토산업인 새우젓의 경우 지역적 배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시장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토굴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통한 기술노하우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 및 신활력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에 새우젓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들의 자발적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홍성군 향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체간의 네트워크의 확충 및 공동학습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5) 예산군

예산의 대표적 향토자원으로는 예산사과를 꼽을 수 있다. 예산군은 신활력사업으로 향토사과를 선정하였고, 향토산업으로는 추사체(타이포그래피)를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예산군의 향토산업은 추사 김정희의 서체를 자원화하여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역 대표자원인 예산사과의 마케팅과 연계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예산군에서 향토산업으로 선정한 추사체(타이포그래피)는 추사 김정희라는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추사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예산군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동질감과도 크게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예산군의 추사체가 향토산업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예산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낮음
		차별성	높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낮음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낮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낮음
		기술수준	낮음
	파급성	파급성	낮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낮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낮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낮음

한편 예산군의 지역경제는 대부분 예산사과에 초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다. 즉 주요 경제 및 지역개발정책이 사과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각종 지역단체 또한 예산사과와 관련된 조직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추사체에 대한 지역정책과 관련산업조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추사체를 타이포그래피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창의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토산업의 본질적 목적과 선정기준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비신향력사업 지역의 적정성 분석

1) 아산시

아산시는 향토산업으로 유기농 배와 토마토를 선정·신청하였다. 전통적으로 아산시의 향토자원으로는 온천, 현충사, 어리굴젓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향토자원과 아산시가 지정한 유기농 배·토마토는 기본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하겠다. 아산시가 향토산업으로 배와 토마토를 신청한 주된 이유는 아산지역의 주된 농업기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산의 배와 토마토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산시 배 재배면적은 994.5ha로 총생산량이 20,566톤(2008)이고, 약 9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422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쌀 다음으로 소득점유율이 높은 작물이다. 한편 토마토 재배면적은 17.6ha로 총생산량 2,252톤(2008)이다. 아산은 유기인증 토마토 면적과 농가수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32농가에서 1,637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선정한 향토산업인 배와 토마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산시의 역사성 및 전통성에 배태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향후 외국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유기농시장은 틈새시장으로 형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산시는 유기농 배와 토마토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배와 토마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조직과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아산시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유기농 배와 토마토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배중인 배와 토마토 농가를 중심으로 작목반 결성 등의 조직화단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와 토마토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아산시의 지원과 더불어 배와 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아산시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보통
		차별성	낮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보통
	전통성	역사성	낮음
		전통성	낮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보통
		기술수준	높음
	파급성	파급성	낮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낮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낮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낮음

2) 서산시

서산시의 대표적 향토자원으로는 생강을 꼽을 수 있다. 서산의 생산재배면적은 681ha인데, 이는 전국 재배면적 1,656ha의 41.1%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산시는 지역특화도가 높은 생강을 주원료한 생강한과를 향토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산시의 향토산업은 1차농산품을 활용하여 가공산업 육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서산시가 향토산업으로 생강한과를 선택한 추가적 이유로는 슬로푸드 식문화로의 변화와 신상품개발 및 지적자산의 가치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과의 고유적 특성으로 인해 한과소비시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고 있고,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성과 지역경제파급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서산시에는 18개의 생강한과 생산업체가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생산업체는 생산자협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생산자협회는 생강한과영농조합법인을 결성·운영하고 있는 바, 지역내 추진주체와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서산시의 생강한과는 지역성, 전통성, 그리고 추진의지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과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개척의 문제와 낮은 기술수준이 향토산업 육성에 중요한 애로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산시 생강한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 및 마케팅의 확충과 시장수요의 개척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서산시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높음
		차별성	높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높음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높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보통/낮음
		기술수준	보통/낮음
	파급성	파급성	보통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높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높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낮음

3) 논산시

논산시의 경우 당초 향토산업으로 강경 젓갈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논산시는 양촌감을 활용한 추시주를 향토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논산시의 향토산업은 논산 시내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을 향토산업으로 선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은 지역 향토산업의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금번 논산시가 향토산업으로 선정한 추시주는 양촌의 꽃감시장 포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양촌꽃감의 연간 생산량은 250톤 정도인데, 이는 전국 생산량의 4.4%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단일 생산지역으로는 일곱 번째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양촌감의 재배면적은 47.5ha이고 꽃감생산량은 172톤이며, 생산자는 358명, 연간 판매규모는 2,89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역내에 감관련 가공 및 유통업체는 총 7개소이고, 종사자수는 96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논산시는 감 혹은 꽃감으로 특화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6년 12월 양촌꽃감특구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으로 인해 최근 감 재배 및 꽃감생산량의 증가율이 전국 최대 4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을 활용한 추시주는 향토자원과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추시주는 일종의 감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산시는 와인이라는 이름 대신 추시주라는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시주란 감으로 숙성하여 담은 전통의 우리 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향토산업으로 추진하는 추시주의 경우 상표등록과 특허등록을 하여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와인시장의 확대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논산에는 감과 관련한 재배작목반 및 영농조합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추시주는 중국산 꽃감의 수입으로 시장개척이 어려운 국내 시장여건과 감 및 꽃감 재배 부산물을 가지고 가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내 감 재배농가에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논산시에서 선정한 추시주는 향토산업으로 적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토산업으로 성공한 이후 이익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배분할 것인가와 추시주를 바탕으로 한 장소판축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8〉 논산시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높음
		차별성	높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높음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높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높음
		기술수준	높음
	파급성	파급성	높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높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높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낮음

4) 금산군

금산군은 기 추진하고 있는 인삼 향토산업을 대신하여 2008년에는 갯잎을 향토산업으로 선정하였다. 금산군이 기 추진한 인삼은 전국적 명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 향토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금번 선정한 갯잎은 추부면을 중심으로 하여 금산군 북부의 3·4개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하겠다.

한편 금산군의 향토자원 목록에는 금산군이 기 추진한 인삼과 금번 추진할 갯잎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바, 1차적으로 금산군이 선정한 갯잎은 향토산업의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금산은 전국 갯잎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1,929명의 회원이 79개의 작목반을 결성하고 있다. 그리고 금산에서는 갯잎을 1차 가공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전국 유일의 만인산농협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금산 갯잎은 대형마트 판매와 대외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IT 기술을 접목시켜 최첨단 시스템으로 깻잎을 판매하고 있으며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깻잎명품화사업단이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표 19〉 금산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높음
		차별성	높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높음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높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보통
		기술수준	높음
	파급성	파급성	높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높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높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높음

한편 금산 깻잎의 경우 농협과 작목반에서 대학과 국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깻잎 기능성 물질 탐색 및 활용에 대한 연구(만인산농협), 금산깻잎을 이용한 가공제품 및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사업(만인산농협)과 깻잎을 이용한 식품개발에 관한 연구(작목반)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금산 깻잎은 국내 최초로 세척 깻잎을 생산하고 있고, 8개의 상표류와 2개의 서비스류를 등록하고 있다. 또한 추부깻잎작목반,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배재대학교, 중부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충남농업기술원, 만인산농협, (주)유진텍 등의 깻잎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가 활동 중에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금산 깻잎의 경우 향토산업의 선정기준을 대부분 부합할 뿐 아니

라, 발전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금산 갯잎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갯잎의 유통과 마케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태안군

태안군은 향토산업으로 태양초고추를 선정·신청하였다. 금번 태안군에서 선정한 태양초고추는 당진군 향토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 바, 1차적으로 향토산업의 전제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태양초고추는 태안군 전체로 볼 때, 안면도를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는 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추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고추의 재배면적이 2002년 72,104ha에서 2007년 56,085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태안은 오히려 동 기간 중 775.9ha에서 987ha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태안군에서 고추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재배농가 및 태안군 태양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안면도를 중심으로 태양초를 재배하던 것이 태안읍, 고남면, 소원면, 원북면 등으로 재배지역이 확장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28농가를 대상으로 태양초를 계약재배하고 있고, 대부분의 생산량은 안면농협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 중국산 고춧가루의 수입증대로 인해 지리적표시제가 고추산업에서 매우 중요한데, 태안군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 차원에서 태양초고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와 추진조직 및 역량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태안군 태양초고추는 향토산업의 1차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화의 가능성 및 추진의지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태양초고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입산 고추와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지리적표시제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내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작목반을 중심으로 태양초고추의 네트워크 확충과 공동학습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태안군 향토산업의 적정성

부문	기준	세부기준	적정성
향토자원과 부합성	지역성	집단성	높음
		차별성	높음
		지역특성과 부합성	낮음
	전통성	역사성	높음
		전통성	높음
산업화 가능성	시장성	시장성	보통
		기술수준	보통
	파급성	파급성	높음
추진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추진주체의 의지	낮음
	추진조직	추진조직	낮음
	추진역량	추진역량	낮음

3. 향토산업 적정성 분석의 종합

1) 선정기준별 분석종합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선정기준을 크게 향토자원과 부합성, 그리고 산업화 가능성, 그리고 추진의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세 가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시군별 향토산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향토자원과 부합성 측면에서 볼 때, 전체 10개 시군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의 6개 시군의 부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태안과 공주의 향토산업이 향토자원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과 아산은 향토자원과 부합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산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논산, 금산, 부여의 향토산업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시군은 산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산군의 경우 향토산업의 산업화 가능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산업화 가능성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토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향토산업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추진의지 측면에서 볼 때, 금산, 부여, 청양의 향토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추진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서산, 논산 등은 추진의지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외 지역은 추진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토산업의 성공가능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조직의 적극적이 추진의지와 향토산업관련 추진조직의 결성 및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공동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충남지역의 분석종합

충남지역 향토산업 선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선정기준 중 향토자원의 부합성(4.2)은 높게 평가되지만, 산업화 가능성(3.5)은 보통인 것으로, 반면 추진의지(2.9)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향토산업은 기본적으로 향토자원과 부합성이라는 1차적 조건은 대부분 만족하지만, 산업화가능성과 추진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는 세부항목별로 살펴보아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향토자원과 부합성에서는 전통성(4.4)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역성(4.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 가능성에서는 과급성(3.6)이 시장성(3.4)에 비해서 더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추진의지에서는 추진주체의 의지(3.4), 추진조직(3.0), 그리고 추진역량(2.2) 등은 다른 선정기준에 비해서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1> 충남지역 향토산업 적정성 분석의 종합

구분	전체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체	3.6	2.6 (8)	1.9 (9)	4.1 (5)	4.6 (3)	4.8 (1)	4.8 (1)	4.6 (3)	3.9 (6)	1.7 (10)	3.2 (7)
향토자원과 부합성	4.2	3.4	1.8	5.0	5.0	5.0	5.0	5.0	5.0	2.6	4.2
지역성 소계	4.1	2.3	2.3	5.0	5.0	5.0	5.0	5.0	5.0	2.3	3.7
집단성	4.0	1.0	3.0	5.0	5.0	5.0	5.0	5.0	5.0	1.0	5.0
차별성	4.4	3.0	1.0	5.0	5.0	5.0	5.0	5.0	5.0	5.0	5.0
지역특성과 부합성	3.8	3.0	3.0	5.0	5.0	5.0	5.0	5.0	5.0	1.0	1.0
전통성 소계	4.4	5.0	1.0	5.0	5.0	5.0	5.0	5.0	5.0	3.0	5.0
역사성	4.6	5.0	1.0	5.0	5.0	5.0	5.0	5.0	5.0	5.0	5.0
전통성	4.2	5.0	1.0	5.0	5.0	5.0	5.0	5.0	5.0	1.0	5.0
산업화 가능성	3.5	3.0	3.0	3.0	5.0	4.3	4.3	3.7	3.7	1.0	3.7
시장성 소계	3.4	4.0	4.0	3.0	5.0	4.0	4.0	3.0	3.0	1.0	3.0
시장성	3.2	3.0	3.0	3.0	5.0	3.0	5.0	3.0	3.0	1.0	3.0
기술수준	3.6	5.0	5.0	3.0	5.0	5.0	3.0	3.0	3.0	1.0	3.0
파급성 소계	3.6	1.0	1.0	3.0	5.0	5.0	5.0	5.0	5.0	1.0	5.0
추진의지	2.9	1.0	1.0	3.7	3.7	5.0	5.0	5.0	2.3	1.0	1.0
추진주체의 의지	3.4	1.0	1.0	5.0	5.0	5.0	5.0	5.0	5.0	1.0	1.0
추진조직	3.0	1.0	1.0	5.0	5.0	5.0	5.0	5.0	1.0	1.0	1.0
추진역량	2.2	1.0	1.0	1.0	1.0	5.0	5.0	5.0	1.0	1.0	1.0

3) 향토산업의 적절성 결정요인분석

향토산업을 선정하는 기준인 향토자원과 부합성, 산업화 가능성, 그리고 추진의지가 향토산업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향토산업 종합점수와 향토자원과 부합성($r=0.94095$)과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추진의지($r=0.89352$)이고, 산업화 가능성(0.8077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향토자원과 부합성과 산업화 가능성의 상관성은 0.68545 로 나타난 반

면, 향토자원 부합성과 추진의지의 상관관계는 0.7724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토자원 부합성, 산업화 가능성, 추진의지는 향토산업 종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2>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향토자원과 부합성	산업화 가능성	추진의지	향토산업 종합점수
향토자원과 부합성	1.00000			
산업화 가능성	0.68545	1.00000		
추진의지	0.77247	0.60717	1.00000	
향토산업 종합점수	0.94095	0.80775	0.89352	1.00000

주: $p < 0.05$

한편 향토산업 종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향토자원과 부합성, 산업화 가능성, 그리고 추진의지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F값은 6992.65($\text{prob} > 0.0001$)이고, R^2 는 0.9997인 바,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매우 탁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추정된 회귀모형이 전체 변동의 99.99% 정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별 독립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향토자원 부합성의 표준 추정계수는 0.45827($\text{prob} > 0.0001$)이고, 산업화 가능성의 추정계수는 0.124768($\text{prob} > 0.0001$), 그리고 추진의지의 추정계수는 0.40507($\text{prob} > 0.0001$)이다. 따라서 향토산업의 종합점수에는 향토자원 부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추진의지, 그리고 산업화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토산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향토자원의 부합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추진의지가 양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향토산업의 산업화 가능성이 취약하다는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토산업의 선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토자원의 부합성을 고려하고, 이들 향토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향토산업의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향토산업의 적절성 결정요인분석

구분	추정치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ob>t
상수	-0.02981	-	0.03533	-0.84	0.4267
향토자원과 부합성	0.45964	0.45827	0.01207	38.08	0.0001
산업화 가능성	0.27245	0.24768	0.01058	25.75	0.0001
추진의지	0.26852	0.40507	0.00731	36.73	0.0001
결정계수	0.9997				
F-값(Prob>F)	6992.65(0.0001)				

제4절 충남지역 향토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방향

1. 향토산업 클러스터의 구축현황

2008년도에 선정된 개별 시군의 향토산업의 발전잠재력과 클러스터 구축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우편조사와 E-mail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개별 시군별로 선정된 향토산업의 파급효과와 클러스터 구성별 확충도, 그리고 향토산업의 발전방향 등이다. 한편 설문조사는 총 244부를 발송하였고, 이중 회수된 조사표는 65부이다.

1) 향토산업의 파급효과

금번 선정된 향토산업의 파급효과성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논산 추시주의 경우 파급효과성이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의 부여 멜론(3.97), 아산 배·토마토(3.9)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서산 배·토마토(3.04), 공주 계룡백일주(3.23), 금산 깻잎(3.33)은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파급효과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향토산업의 경우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실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개 시군 모두에 있어서 고용창출의 기대효과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논산, 부여, 아산, 홍성과 같이 향토자원의 지역성과 지역산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토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성과 지역산업과의 관련성에 기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파급효과

구분	전체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파급효과 소계	357	323	390	304	400	333	397	367	378	339	339
고용창출	334	310	367	343	289	375	320	390	300	350	300
소득증대	374	330	367	414	300	413	360	410	400	383	367
지역경제활성화	374	330	400	414	322	413	320	390	400	400	350

주: 파급효과는 1(매우 작음)과 5(매우 큼) 사이의 값을 가짐.

2)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정도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집적수준, 노동시장, 네트워크, 착근성, 거버넌스, 공동학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관률, 2005). 이러한 클러스터 구성요소의 확충도는 향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전제조건이다. 클러스터의 구성요소의 확충 정도에 따라 단순집적지, 산업지구, 학습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순집적지는 집적경제와 노동시장이 확충된 단계, 산업지구는 단순집적지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와 착근성이 확충된 단계, 그리고 학습지역은 산업지구 거버넌스와 공동학습의 기능이 추가된 상태를 의미한다(이관률, 2005).

전반적으로 볼 때, 충남지역의 향토산업은 집적수준(3.60)과 착근성(3.57)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선정된 향토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내에 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집적되어 있고, 이들 생산기반이 지역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으로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차원의 거버넌스(3.46)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네트워크(3.20)와 공동학습(3.29), 그리고 노동시장(3.41)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의 향토산업은 단순집적지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이 취약하고, 산업지구 측면에서는 네트워크가 취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지역 측면에서는 공동학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클러스터가 다단계적 발전단계를 형성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할 때, 충남지역 향토산업은 클러스터의 각 발전단계별로 필요로 한 구성요소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단순집적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산업지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지 못하며, 학습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공동학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향토산업은 아직 클러스터의 맹아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군별로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정도를 살펴보면 충남전체의 경향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몇몇 지역은 향토산업이 단순집적지 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집적지 단계에 있는 대표적 지역은 아산, 서산, 청양으로서, 이들 지역의 향토산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클러스터적 측면에서 볼 때, 향토산업이 단순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단순집적지 차원에서 산업지구로 성장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 공주, 논산, 금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등의 지역은 향토산업이 단순한 집적과 착근성예 기반을 두고 있는 바,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향토산업육성계획에서는 향토산업의 생산기반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만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표 25〉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정도

구분	전체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체	3.40	3.26	3.44	3.52	3.25	3.28	3.48	3.70	2.88	3.77	3.38
집적수준	3.60	3.45	3.83	4.07	3.31	3.50	3.50	3.80	3.50	3.50	3.58
관련산업의 집적정도	3.74	3.50	4.33	4.14	3.38	3.63	3.40	3.80	4.00	3.67	3.50
지원산업의 집적정도	3.48	3.40	3.33	4.00	3.25	3.38	3.60	3.80	3.00	3.33	3.67
노동시장	3.41	3.10	4.00	3.64	3.28	3.44	3.30	3.60	3.00	3.42	3.33
노동인력의 공급정도	3.37	2.80	3.67	3.86	3.11	3.75	3.40	3.60	3.00	3.33	3.17
노동인력의 기술수준	3.45	3.40	4.33	3.43	3.44	3.13	3.20	3.60	3.00	3.50	3.50
네트워크	3.20	3.40	3.33	3.21	3.14	2.84	3.45	3.45	2.33	3.67	3.21
연구개발 네트워크	3.16	3.60	3.33	3.29	2.89	2.38	3.60	3.70	2.00	3.67	3.17
생산네트워크	3.50	3.40	4.00	3.57	3.33	3.50	3.60	3.60	3.00	3.67	3.33
마케팅 네트워크	3.11	3.20	3.00	3.00	3.33	2.88	3.40	3.30	2.00	4.00	3.00
금융 네트워크	3.11	3.40	3.00	3.00	3.00	2.63	3.20	3.20	-	3.33	3.20
착근성	3.57	3.43	3.44	3.76	3.15	3.63	3.27	4.20	3.33	4.17	3.33
지역적 대표성	3.80	4.10	3.00	4.29	3.11	3.75	3.00	4.70	4.00	4.33	3.67
비공식적 정보교류	3.37	3.30	3.33	3.57	3.11	3.25	3.20	3.80	3.00	4.00	3.17
협회 및 조합결성	3.55	2.90	4.00	3.43	3.22	3.88	3.60	4.10	3.00	4.17	3.17
거버넌스	3.46	3.23	2.89	3.43	3.63	3.38	3.73	3.90	3.00	3.94	3.50
향토산업 정책의 참여정도	3.72	3.50	3.33	3.71	4.00	3.63	3.40	4.00	4.00	4.00	3.67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3.59	3.30	2.33	3.86	3.67	3.50	4.40	3.80	3.00	4.17	3.83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3.08	2.90	3.00	2.71	3.22	3.00	3.40	3.90	2.00	3.67	3.00
공동학습	3.29	3.00	3.50	3.36	3.14	3.22	3.55	3.43	2.50	3.75	3.42
공동의 교육기회 제공	3.38	2.90	3.33	3.43	3.33	3.50	3.80	3.70	2.00	4.17	3.67
관련 정보의 제공	3.37	3.00	3.33	3.57	3.44	3.13	3.60	3.50	3.00	3.83	3.33
향토산업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수준	3.08	3.10	3.33	3.29	2.67	3.00	3.40	3.30	2.00	3.50	3.17
정보통신망	3.31	3.00	4.00	3.14	3.11	3.25	3.40	3.20	3.00	3.50	3.50

주: 구축정도는 1(매우 작음)과 5(매우 큼) 사이의 값을 가짐.

3) 향토산업 클러스터의 결정요인분석

향토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향토산업의 육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토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구성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의 파급효과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클러스터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앞서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정도에서 도출한 내용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하겠다. 분석에 앞서 추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F값은 542.61(prob>0.0001)이고 R^2 는 0.9825인 바,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추정된 회귀모형이 전체 변동의 98.25% 정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독립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은 집적수준(prob>0.0765), 착근성(prob>0.001), 거버넌스(prob>0.0500), 그리고 공동학습(prob>0.030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거버넌스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바, 거버넌스의 구축정도가 오히려 향토산업의 파급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노동시장과 네트워크는 향토산업의 파급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토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착근성과 집적수준, 그리고 공동학습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클러스터의 단계적 발전모형을 가정할 때, 충남지역 향토산업은 클러스터의 기초적 구성요소인 노동시장과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충남지역 향토산업을 클러스터 모형에 의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단순집적지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지구로 발전하는 다단계적 발전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클러스터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거버넌스가 충남지역 향토산업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향토산업의 경우 지나치게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토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주도형 모델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표 26> 향토산업 클러스터의 결정요인분석

구분	추정치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ob>t
집적수준	0.26805	0.26719	0.14865	1.850	0.0765
노동시장	0.06938	0.06574	0.13007	0.53	0.5958
네트워크	-0.01943	-0.01780	0.14569	-0.13	0.8944
착근성	0.74949	0.75069	0.14862	5.04	0.0001
거버넌스	-0.30846	-0.30344	0.15407	-2.00	0.0500
공동학습	0.24865	0.23145	0.11207	2.22	0.0304
결정계수	0.9825				
F-값(Prob>F)	542.61(0.0001)				

2. 향토산업의 성공요인과 발전전략

1) 향토산업의 성공요인

향토산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공요인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향토산업의 발굴, 향토산업의 계획화, 향토산업의 활용범위 증대, 향토산업의 홍보·마케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토산업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향토산업의 활용범위를 증대(38.5%)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향토산업의 홍보·마케팅(27.7%)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향토산업의 계획화(23.1%)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잘 발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굴된 향토산업의 활용범위를 증대하는 범위의 경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토산업의 발전전략

향토산업의 발전전략은 크게 전문화전략, 연계화전략, 다각화전략, 그리고 융합화전략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문화전략은 하나의 향토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고, 연계화전략은 동일한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유사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며, 다각화전략은 2개 이상의 상이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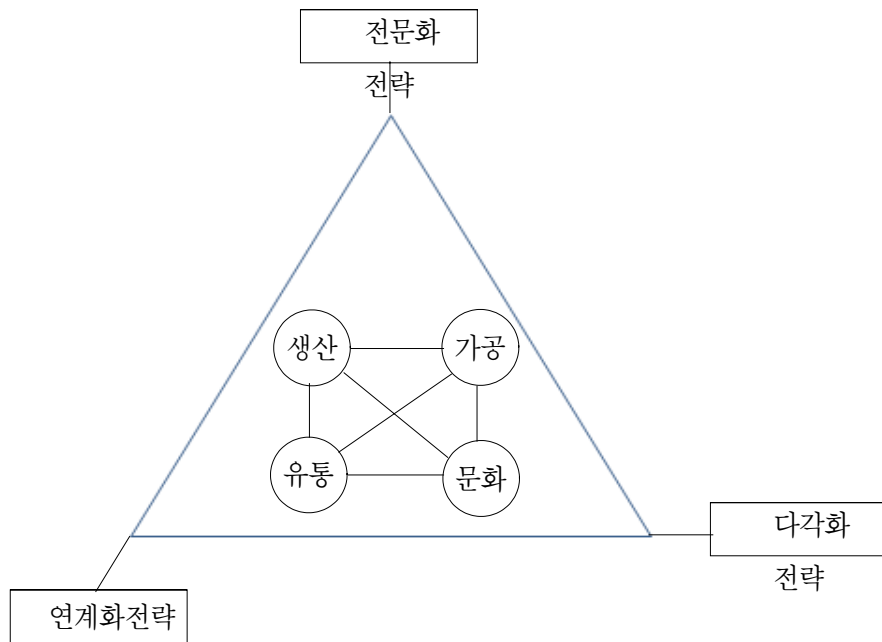
으로 구분된다. 끝으로 융합화전략은 전문화, 연계화, 다각화전략 중 2개 이상의 전략을 혼합하는 전략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토산업의 발전전략으로는 전문화전략(32.8%)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연계화전략(27.9%)과 다각화전략(21.3%)이 선호되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융합화전략에 대해서도 18.0%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27> 향토산업의 성공요인과 발전전략

구분	구분	빈도	구성비
성공요인	전체	65	100.0
	향토산업의 발굴	2	3.1
	향토산업의 계획화	15	23.1
	향토산업의 활용범위 증대	25	38.5
	향토산업의 홍보·마케팅	18	27.7
	기타	5	7.7
발전전략	전체	61	100.0
	전문화 전략	20	32.8
	연계화 전략	17	27.9
	다각화 전략	13	21.3
	융합화 전략	11	18.0

한편 충남지역 시군에서는 향토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크게 전문화전략, 연계화전략, 다각화전략의 세 가지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충남지역 시군별 향토산업의 발전전략을 유형화해 보면, 전문화전략에는 청양의 구기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계화전략에는 홍성의 새우젓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각화전략에는 금산의 갯잎, 부여의 멜론 등을 비롯한 그 외 시군의 향토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발전전략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확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 시군에 향토자원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향토산업이 전반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향토자원을 선정하여 발전단계별 전략을 취하는 청양군 구기자 형태의 전문화전략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향토자원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방자

치단체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의 향토산업이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다면, 지역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화전략 혹은 다각화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천, 예산 등은 기존의 향토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다른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려는 다각화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향토산업의 발전전략

3. 향토산업의 발전방향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발전방향은 향토산업의 선정과정, 선정된 결과의 적절성, 선정된 향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정도, 그리고 발전전략의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향토산업의 선정과정적 측면에서 볼 때,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토자원의 발굴과 향토자원의 역량분석을 토대로 한 향토산업육성계획이 개별 시군별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토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과 전문가 자문단 등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토산업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향토산업 선정시 향토자원의 부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선정된 향토산업이 중앙부처의 심사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향토자원이 지역적 특성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토산업의 선정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향토산업관련기관의 조직화와 역량제고를 위한 공동학습기회를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정된 향토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집적지→산업지구→학습지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러스터 구성요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토산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클러스터 구성요소적 측면에서 보면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토산업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집적과 노동시장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와 착근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와 공동학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향토산업은 단순집적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확충보다는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모순적 구조를 갖고 있다.

넷째, 선정된 향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토산업의 활용범위를 증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향토산업의 발전전략 중 전문화전략, 연계화전략, 다각화전략, 융합화전략을 지역의 향토자원과 산업발전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충남지역의 향토산업은 1차 농산품 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고, 대부분 향토자원 부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산업화 가능성은 보통인 것으로, 그리고 추진의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향토산업의 종합점수가 높은 지역은 추진의지와 산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성적 분석결과와 회귀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결과에서 동일하게 얻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토산업의 선정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향토자원에 기반을 하여야 하고, 지역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향토산업의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금까지 충남지역 시군에서는 향토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크게 전문화전략, 연계화전략, 다각화전략의 세 가지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화전략은 하나의 향토산업을 선정하여 생산-가공-유통의 단계적 발전모델을 취하는 형태이고, 연계화전략은 유사한 자원을 연계하여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형태이며, 다각화전략은 2개 이상의 향토산업으로 다양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충남지역 시군별 향토산업의 전략모델을 구분해 보면, 전문화전략에는 청양의 구기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계화전략에는 홍성의 새우젓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각화전략에는 금산의 갯잎, 부여의 멜론 등을 비롯한 그 외 시군의 향토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발전전략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확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 시군에 향토자원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향토산업이 전반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향토자원을 선정하여 발전단계별 전략을 취하는 청양군 구기자 형태의 발전모델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향토자원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의 향토산업이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다

면, 지역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모형 혹은 다각화모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천, 예산 등은 기존의 향토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다른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려는 다각화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 경제기반 붕괴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산업 육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특화된 품종의 집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충남지역 향토산업은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토산업의 산업화 가능성과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행위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충남지역 향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별 시군 향토산업의 노동시장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 및 혁신인력의 양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향후 향토산업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새로운 인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개별 시군 향토산업의 생산, 유통, 가공,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등 관련산업 전반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시군 향토산업은 지역내 네트워크와 공동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경우 대부분 집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네트워크와 공동학습의 체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향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공동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공동학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시군 향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공식적 모임과 협회 및 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문화에 배태되어야 한다. 향토산업은 공식적 영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과 동시에 비공식적 분야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향토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선진외국 농업클러스터는 직접적인 시장개척, 틈새시장의 개척, 투어리즘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투어리즘은 클러스터의 이미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클러스터내 기업들의 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상북도. 2005. 경북향토산업육성계획.
- 고복남 외. 2005.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389-403.
- 김상범. 200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향토자원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 김선기. 2003.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안제 외. 2003.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서울:박문각.
- 김정호 외.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514-534.
- 김현호·한표환. 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농림부. 2005.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계획.
- 농림부. 2007. “2007 향토산업육성 추진방안,” 내부자료.
- 농림부·농어촌연구원. 2004. 농촌지역 향토산업 육성방안.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지역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사례분석.
- 박석두 외. 2004.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두외. 2004. 농촌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용·윤칠석. 2006. “향토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안동·영주지역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6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 101-134.
- 변필성. 2006.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 상품화의 사례로서 머드화장품 사업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경제지리학회. pp.
- 송영필 외. 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안형순. 2007. “지역자원의 향토산업화 과정 및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담양대 나무신산업과 광양매실산업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0권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pp. 61-80.
- 양병우. 2007. “향토자원의 장소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수요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축산경영학회·한국농업정책학회. pp. 22-40.
- 엄대호. 2006. 향토자원평가연구. 농림부.
- 우윤석. 2004.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43권: 21-36.
- 원천식. 2005. “향토산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KIET 산업경제 통권 79호. 산업연구원. pp. 67-77.
- 유재원 외. 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41-63.
- 이관률. 2005.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특성과 영향구조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우 외. 2003.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연구. 국토연구원.
- 이동필 외.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농림부.
- 이성근·이관률. 2006. “구미단지 혁신클러스터 분석과 구축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1권 제2호: 191-209.
- 이성근·박상철·이관률. 2006.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한국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한국정부학회. pp. 205-233.
- 이성근·이관률. 2007. “성주참외 클러스터의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9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pp. 71-86.
- 이종호. 2005. “지역 농산업산지의 혁신환경과 클러스터의 육성전략,”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33-246.
- 충남전략산업기획단. 2004. 충남 향토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황종환. 2005.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향토자원 보호·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2. 국외문헌

- Acs, Zolitan J.. 2000. Regional Innovation. Knowledge and Global Change. Pinter. London.
- Camagni, R.. 1991.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s. Bellhaven Press. London.
- Capello, R.. 1999. "Spatial Transfer of Knowledge in High Technology Milieux: Learning Versus Collective Learning Process," Regional Studies Vol 33. No. 4: 353-365.
- Cooke, P.. 1996. Regional Innovation System: concepts. analysis. and typology. The Working Papers of RESTPOR '96: Global Comparison of Regional RTD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and Cohesion. The European Commission in Brussels.
- Cooke, P.. 1998. "Introduction," in Braczyk, H. J.. P. Cooke. M. Heidenreich(Ed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UCL Press. London.
- DTI. 2003. A Practical Guide to Cluster Development.
- Hazbu, Waleed. 2004. "Globalisation . Reterritorialisation and the Polictical Economy of Tourism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Geopolitics Vol. 9 No 2. pp. 310-341.
- Jasek-Rysdahl, Kelvin. 2001. "Applying Sen's Capabilities Framework to Neighborhoods: Using Local Asset Map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Well-being," Review of Social Economy Vol. 59 No. 3. pp. 313-329.
- Oinas, P.. E. J. Malecki. 1999. "Spatial Innovation Systems," in Malecki. E. J.. P. Oinas(Eds). Making Connections. Aldershot. Ashgate.
- Porter, M.. 1998. On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Cambridge. MA.

[조사표]

향토산업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정책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과 16개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충남지역 향토산업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실증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별 기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성의 있는 답변은 향토산업 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현실성 있는 정책모색에 절대 필요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2008년 11월 27일까지 반송해 주시면 연구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조사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관률

※ 본 설문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041-840-1143 Fax: 041-840-1129, E-mail: krlee@cdi.re.kr)

향토산업 정의와 특성	<p>향토산업이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p> <p>이러한 향토산업은 지역성과 전통성이 있고 자원이나 생산과정, 산출의 성격을 기초로 상품화 또는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내 동종 업체들이 집단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
-------------------	---

I. 향토산업 선정의 적정성

1. 공주시에서는 2008년 향토산업으로 “계룡백일주”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선정된 향토사업은 “향토산업의 본연의 목적”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정하다 ② 적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정하지 않다 ⑤ 매우 적정하지 않다

2. 다음 항목은 향토산업 선정기준입니다. 공주시에서 선정한 계룡백일주는 향토산업의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집단성	관련 산업들의 집적 정도					
차별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적 고유성					
지역부합성	지역적 특성과 조화 및 부합성					
역사성	상당 기간 지역에 존재해 온 시간적 연속성					
전통성	지역에 전해져 오는 동질감 및 전통성					
시장성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을 가능성					
기술성	상품화가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기술성					
경제적 파급성	지역경제성장장에 미치는 파급성					
산업연관성	지역에 있는 연관산업과의 연관성					
추진의지	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추진조직	추진조직의 구성					
추진역량	추진조직의 역량					

3. 공주시에서 선정한 계룡백일주는 다음의 각 부문별로 어느 정도의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구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우수한 상품 생산					
다양한 가공 분야					
유통·마케팅 개척					
문화·체험 가능성					

4. 공주시에서 선정한 계룡백일주는 향토산업으로 성공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5. 공주시에서 선정한 계룡백일주(향토산업)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고용창출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6. 다음은 향토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인입니다. 공주시에서 선정한 계룡백일주는 다음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집적수준	관련산업의 집적정도					
	지원산업의 집적정도					
노동시장	노동인력의 공급정도					
	노동인력의 기술수준					
네트워크	연구개발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					
지역성	지역적 대표성					
	비공식적 정보교류					
	협회 및 조합결정					
거버넌스	향토산업 정책의 참여정도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공동학습	공동의 교육기회 제공					
	관련 정보의 제공					
	향토산업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 수준					
	정보통신망					

II. 향토산업의 발전방향

1. 향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향토산업의 발굴 ② 향토산업의 계획화 ③ 향토산업의 활용범위 증대
④ 향토산업의 홍보·마케팅 ⑤ 기타()

2. 향후 공주시에서 향토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나의 향토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전문화 전략)
② 동일한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유사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연계화 전략)
③ 2개 이상의 상이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전략(다각화 전략)
④ 상기 전략의 혼합(+)하는 전략(융합화 전략)

3. 향후 공주시에서 향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향토자원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발전잠재력이 높은 순으로 3가지를 꼽아 주십시오. 공주시의 향토자원은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에 없는 향토자원을 기입해 주셔도 됩니다.

▶ 통천포배	▶ 충남 산림박물관	▶ 철화분청사기안료
▶ 정안밤	▶ 의당전통메주	▶ 웅진쌀
▶ 우성오이	▶ 우성 무성산	▶ 신평고추
▶ 선학리 지게놀이	▶ 봉암한방란골드	▶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 목공예품(한목예사)	▶ 동해동 산수박	▶ 도태랑토마토
▶ 공주장승제	▶ 공주민속극박물관	▶ 공주먹는꽃
▶ 공주국립박물관	▶ 공주감초	▶ 공주 백제문화제
▶ 계룡산 산신제	▶ 계룡산딸기	▶ 계룡산건조누에가루
▶ 계룡산 조각공원	▶ 계룡산도예촌	▶ '각;(覺)자' 목탁

① 1순위(), ② 2순위(), ③ 3순위()

4. 귀하는 향토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행정지원 미흡 ② 권련기업의 영세성 ③ 시장확보의 어려움
④ 소비자 인지도 취약 ⑤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⑥ 우수인력과 노동력 확보 애로

- ⑦ 원료확보의 어려움 ⑧ 경영능력 부족 ⑨ 연구개발력 미흡
- ⑩ 홍보 및 판매촉진 미흡 ⑪ 기타()

5. 기존의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향토산업체의 혁신역량 및 개발역량 부족과 전근대적인 생산방식
- ②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미흡
- ③ 시군단위에 관련 지원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 ④ 지역실정에 맞는 향토산업 육성 지원 정책 부족
- ⑤ 명성을 가진 상표나 고유한 제조방법 등 향토지적재산권의 보호 미흡
- ⑫ 기타()

6.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갖추어져야 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향토기업지정 및 육성 ② 향토산업 추진주체의 역할 강화
- ③ 향토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네트워킹 ④ 독창적인 향토브랜드 개발
- ⑤ 향토산업의 홍보 및 판매촉진 ⑥ 전통 및 지역문화의 연계 확대
- ⑦ 전문인력 및 후계자 양성 ⑧ 향토명품 지정제도 도입
- ⑨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⑩ 맞춤형 지원체계 실현
- ⑪ 제조방법 등의 특허등록 및 지적재산권화 ⑫ 지리적표시 등 상표와 상호관리제도 개선
- ⑬ 향토산업체의 프랜차이즈화 ⑭ 기타()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08-07 · 충남지역 향토산업 선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글쓴이 · 이관률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8년 12월 31일 / 발행 · 200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36(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047-5 03910

<http://www.cdi.re.kr>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